

# 『傷寒論·辨脈法』에 관한 연구(1)

조은경 · 최종문 · 김윤주 · 홍진우<sup>1</sup> ·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1: 내과학교실

## Study on ShangHanLun BianMaiFa (1)

Eun Kyung Cho, Jong Moon Choi, Yun Ju Kim, Jin Woo Hong<sup>1</sup>, Sang Woo Shin\*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BianMaiFa chapter, which is the first chapter of SongBon ShangHanLun, is the scholarly description(專論) of the pulse and pathological mechanism but has not been studied and published yet. This study is about article 1-10 which is the first part of The BianMaiFa chapter. We compared the original texts within the edition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nnotations of successive dynastic medical group. The articles of The SongBon ShangHanLun BianMaiFa chapter 1-10 is consisted as is shown: article 1 discriminates pulse by yin-yang and states about the prognosis of disease according to pulse, article 2 states about binding in yin and binding in yang which is from abnormal exuberance of yin and yang, article 3 states about the pulse and pathological mechanism of chills with fever, article 4 states about pathological mechanism and symptom of nutrient and defense through pulse, article 5 distinguishes within binding in yang(陽結), binding in yin(陰結), yang faintness(陽微), yang debilitation(陽衰), blood collapse(亡血) by the pulse which was in article 2·3·4, article 6·7·8·9·10 states about the shape or pathological mechanism of bound pulse(結脈)·skipping pulse(促脈)·stirred pulse(動脈)·moderate pulse(緩脈)·string-like pulse(弦脈)·tight pulse(緊脈)·drumskin pulse(革脈). Article 4 could be understood that inch pulse is floating and deficient shape and cubit pulse is sunken and weak shape(寸脈浮虛, 尺脈沈弱) related to article 3, article 5 could be understood as binding in yin and yang is aggregation shape related to article 2, yang-qi faintness is floating and debilitation shape, yang-qi debilitation is sunken and faint shape, blood collapse is deficient and stasis shape related to article 3·4.

Key words : ShangHanLun, BianMaiFa, Pulse

### 서 론

宋本『傷寒論』은 10卷 22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연구되는 398개 조문은 5篇부터 14篇까지를 차지하며, 그 앞으로는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痙濕喝脈證의 4개 篇이, 뒤로는 汗吐下의 不可 8개 篇으로 되어 있다.

宋本『傷寒論』의 冒頭를 차지하는 辨脈法 篇과 平脈法 篇은 脈에 대한 專論으로 張仲景이 직접 著作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대로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辨脈法과 平脈法 모두 張仲景의 著作이라는 견해이다. 郭雍<sup>1)</sup>은 『傷寒林亡論』에서 “辨脈法과 平脈法은 모두 仲景의 本文으로 王叔和가 撰次하였으나 옛 기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였다. 둘째, 辨脈法은 張仲景으로부터 著作된 것이나 平脈法은 托名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清代 喻昌<sup>2)</sup>은 “平脈法은 王叔和가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仲景의 글에서 大意를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기록하고 보충하여 오히려 의심되는 부분이 남아있으나, 辨脈法은 仲景이 著作한 것으로 王叔和의 견해가 덧붙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清代 魏荔彤<sup>3)</sup>은 “辨脈法은 仲景의 原文이지만 平脈法은 仲景의 本意가 아니고 王叔和가 著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辨脈法과 平脈法 모두 張仲景의 著作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元代 王履<sup>4)</sup>은 『醫經溯洄集』 “張仲景傷寒立法考”에서 “王叔和는 辨脈法, 平脈法 및 可汗, 可下 등의 모든 篇을 增入한 것”으로, 明末 方有執<sup>5)</sup>은 『傷寒論條辨』 卷七 “辨脈法上篇第十三”에서 “모두 王叔和가 仲景의 말을 서술하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다<sup>6)</sup>.

辨脈法이 敦煌本 『傷寒論』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서기 1065년의 校正醫書局 이전에 존재한 書物이라 추정되며, 그렇다

\* 교신저자 : 신상우, 경남 양산시 금오로 20,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E-mail : swshin@swshin.com, · Tel : 051-510-8463

· 접수 : 2011/08/08 · 수정 : 2011/10/04 · 채택 : 2011/11/08

면 辨脈法 篇이 王淑和의 著作일지라도 同時代人인 張仲景과 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고, 張仲景이 著者라도 그 時代의 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著作이라는 점에서 辨脈法 篇은 역대로 著者 논란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脈學 專門書籍인 『脈經』, 『瀕湖脈學』에서 『傷寒論』 辨脈法 篇과 유사한 내용을 전부 혹은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宋本 『傷寒論』의 각 篇名인 ‘辨OO病脈證并治’에서 體微에 해당되는 脈과 症狀에 해당되는 證을 함께 고려한 점에서 辨脈法 篇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中國은 李<sup>7)</sup>의 『傷寒論』, 陳<sup>8)</sup>의 『傷寒論譯釋』에서 辨脈法 篇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고, 日本에서도 大塚<sup>9)</sup>의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劉<sup>10)</sup>의 『現代語譯 宋本傷寒論』에서 辨脈法 篇에 대한 註釋과 해설을 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本篇에 대한 연구보고를 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宋本 『傷寒論』 「辨脈法」 篇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인 1-10조를 대상으로 諸 版本과의 교감, 역대의가들의 주석을 비교·분석하였다.

##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역대의가들의 註釋書 22종 표 1과 宋本<sup>33)</sup>, 玉函本<sup>34)</sup>, 脈經本<sup>35)</sup>, 敦煌本<sup>36)</sup>, 桂林本<sup>37)</sup>, 중국현대 2종<sup>7,8)</sup>, 일본현대 2종<sup>9,10)</sup>에 대해 제 판본간 원문을 비교하고, 역대의가들의 주석을 분석·비교하였다.

표 1. 참고한 역대서적

	醫家	生沒年度	書名	發刊年度
1 <sup>11)</sup>	韓祗和	복송	傷寒微旨論	1086
2 <sup>12)</sup>	龐安時	복송	傷寒總病論	1100
3 <sup>13)</sup>	許叔微	송대	傷寒百證歌	1132
4 <sup>14)</sup>	成無己	금대	注解傷寒論	1144
5 <sup>15)</sup>	方有執	명대	傷寒論條辨	1593
6 <sup>16)</sup>	王肯堂	명대	傷寒準繩	1603
7 <sup>17)</sup>	盧之頤	명대	仲景傷寒論疏鈔金鉉	1649
8 <sup>18)</sup>	喻嘉言	청초	醫門法律	1658
9 <sup>19)</sup>	張璐	청초	傷寒續論	1667
10 <sup>20)</sup>	柯琴	청초	傷寒論注	1669
11 <sup>21)</sup>	程知	청대	傷寒經注	1669
12 <sup>22)</sup>	程應旆	청초	傷寒論後條辨	1670
13 <sup>23)</sup>	周揚俊	청대 (17세기중엽)	傷寒論三注	1677
14 <sup>24)</sup>	張志聰	청대	傷寒論集注	1683
15 <sup>25)</sup>	張錫駒	청대	傷寒論直解	1712
16 <sup>26)</sup>	魏荔彤	청대 (17세기중엽)	傷寒論本義	1724
17 <sup>27)</sup>	吳謙	청대	醫宗金鑑	1736
18 <sup>28)</sup>	黃元御	청대 (1705-1758)	傷寒懸解	1748
19 <sup>29)</sup>	沈金鰲	청대	傷寒論綱目	1774
20 <sup>30)</sup>	王丙	청대	傷寒論注	1778
21 <sup>31)</sup>	章楠	청말	傷寒論本旨	1835
22 <sup>32)</sup>	周學海	(1856-1906)	辨脈平脈章句	1893

## 본 론

1. 問曰: 脈有陰陽, 何謂也? 答曰: 凡脈大, 浮, 數, 動, 滑, 此名陽

也; 脈沈, 澀, 弱, 弦, 微, 此名陰也. 凡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

### 【校勘】

“凡脈大, 浮, 數, 動, 滑, 此名陽也.”가 玉函本에는 “脈大爲陽, 浮爲陽, 數爲陽, 動爲陽, 滑爲陽”으로 되어 있고, “脈沈, 澀, 弱, 弦, 微, 此名陰也.”가 玉函本에는 “沈爲陰, 澀爲陰, 弱爲陰, 弦爲陰, 微爲陰”으로, 桂林本에는 “凡脈沈, 澀, 遲, 弦, 微, 此名陰也.”로 되어 있다.

### 【解釋】

문기를: 脈에는 陰陽이 있다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답하기를: 무릇 大, 浮, 數, 動, 滑脈은 陽脈이라고 이름하고; 沈, 澀, 弱, 弦, 微脈은 陰脈이라고 이름한다. 무릇 陰病에 陽脈이 보이면 살고, 陽病에 陰脈이 보이면 죽는다.

### 【諸家學說 比較】

“陽脈”과 “陰脈”에 대하여 成<sup>14)</sup>, 張<sup>25)</sup>, 魏<sup>26)</sup>는 有餘와 不足으로, 方<sup>15)</sup>은 陽氣와 陰氣가 이룬 것으로, 程<sup>22)</sup>은 陽은 實·熱·表·府과 陰은 虛·寒·裏·藏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柯<sup>20)</sup>는 陰陽을 體, 勢, 氣, 形, 息의 五法으로 兩分하여 보았으나, 周<sup>32)</sup>는 陽脈, 陰脈은 맥의 종류를 분리한 것일 뿐이며 兼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陰病”, “陽病”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은 三陰三陽의 病으로, 程<sup>22)</sup>, 魏<sup>26)</sup>는 藏府의 病으로, 章<sup>31)</sup>은 陰陽經의 病으로, 周<sup>32)</sup>는 증상으로 구분하였다.

“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에서 생사가 나뉘는 이유를 成<sup>14)</sup>, 程<sup>22)</sup>는 사기가 表裏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盧<sup>17)</sup>는 사기의 이동방향이 上下內外로 달라지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또 方<sup>15)</sup>, 張<sup>25)</sup>은 陰陽의 消長이 드러나는 맥에 달려있음으로 본 반면, 魏<sup>26)</sup>, 章<sup>31)</sup>은 正氣 또는 元氣의 有餘不足, 成敗가 脈에 반영됨으로 이해하였다.

2. 問曰: 脈有陽結1), 陰結2)者, 何以別之? 答曰: 其脈浮而數3), 能食, 不大便者, 此爲實, 名曰陽結也, 期十七日當劇. 其脈沈而遲4), 不能食, 身體重, 大便反鞭, 名曰陰結也, 期十四日當劇.

### 【註釋】

- 1) 陽結: 結은 凝聚不散을 의미하며 熱盛하여 大便秘結不通한 상태이다.
- 2) 陰結: 寒盛하여 大便秘結不通한 상태이다.
- 3) 浮而數: 가볍게 눌러 얻을 수 있는 浮脈과 한호흡 사이에 맥박이 6번 이상 뛰는 數脈을 뜻한다.
- 4) 沈而遲: 무겁게 눌러 얻을 수 있는 沈脈과 한호흡 사이에 맥박이 3번 뛰는 遲脈을 뜻한다.

### 【校勘】

玉函本에는 “其脈”다음에 “自”字가 있고 “不大便者”다음에 “此爲實”이 없다.

### 【解釋】

문기를: 맥에는 陽結과 陰結이 있다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답하기를: 그 맥이 浮하면서 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변을 보지 못하면 이것은 實하게 된 것으로 陽結이라 이름하는

데, 17일이면 더 심해진다. 그 맥이 沈하면서 遲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몸이 무거우나 오히려 대변이 굳으면 이름하길 陰結이라 이름하는데, 14일이면 더 심해진다.

#### 【諸家學說 比較】

“其脈浮而數，能食，不大便者，此爲實，名曰陽結也。”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周<sup>23)</sup>, 張<sup>24)</sup>, 張<sup>25)</sup>, 章<sup>31)</sup> 등은 陽脈에 實, 陽病, 陽證이 나타나서 偏陽되어 “陽結”한 것으로 이해하고, 마땅한 치료법으로 周<sup>23)</sup>는 “陽結先表後里”를, 章<sup>31)</sup>은 “疎利開結”을 제시하였다. 증상 중 “不大便”에 대하여 成<sup>14)</sup>, 程<sup>21)</sup>, 張<sup>24)</sup>, 張<sup>25)</sup>, 章<sup>31)</sup>은 陽氣가 結固해서 相雜하고 調和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반면, 周<sup>23)</sup>, 周<sup>32)</sup>는 陽邪가 內結하여 津液이 不足하기 때문에 이해하였다.

“脈沈而遲，不能食，身體重，大便反硬，名曰陰結也。”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周<sup>23)</sup>, 張<sup>24)</sup>, 張<sup>25)</sup>, 章<sup>31)</sup> 등은 陰脈에 陰病, 陰證이 나타나서 偏陰되어 “陰結”한 것으로 이해하고, 마땅한 치료법으로 周<sup>23)</sup>은 “回陽退陰”을, 章<sup>31)</sup>은 “補陽而生陰”을 제시하였다. 증상 중 “大便反硬”한 이유에 대하여 成<sup>14)</sup>, 程<sup>21)</sup>, 周<sup>21)</sup>, 張<sup>24)</sup>, 張<sup>25)</sup>는 陰氣가 結固해서 相雜하고 調和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반면, 章<sup>31)</sup>, 周<sup>32)</sup>는 陽虛로 溫照하지 못해 陰寒해지고 液이 不足해졌기 때문에 이해하였다. 또한 이를 病因으로 이해한 方<sup>15)</sup>은 風은 陽이고 寒은 陰이므로 中풍 혹은 上한으로 인해 結하여 “不大便” 혹은 “大便反硬”한 것으로, 程<sup>22)</sup>는 “不大便”은 無水, “大便反硬”은 無火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期十七日當劇,” “期十四日當劇.”에 대하여 成<sup>14)</sup>은 1=太陽, 2=陽明, 3=少陽, 4=太陰, 5=少陰, 6=厥陰인데, 傷寒病이 6일간 傳經 후 다시 6일간 再傳經하고 13일 이상이면 過經하는데, 少陰水가 火를, 陽明土가 水를 制하지 못해서 甚해진다고 이해하였고, 張<sup>24)</sup>, 張<sup>25)</sup>은 成<sup>14)</sup>의 견해와 비슷하나 추가적으로 少陰과 陽明은 脈의 生始이라서 少陰과 陽明의 期에 結하면 甚해진다고 보았으며, 周<sup>23)</sup>는 17일이면 內實이 더 實해져서, 14일이면 寒凝이 풀리지 않아서 甚해진다고 인식하였고, 魏<sup>26)</sup>와 章<sup>31)</sup>은 17일은 陰이 왕성한 시기라 陽結이 심해지고, 14일은 陽이 왕성한 시기라 陰結이 심해진다고 이해하였다.

3. 問曰：病有洒淅惡寒1), 而復2)發熱者，何？答曰：陰脈不足，陽往從3)之；陽脈不足，陰往乘4)之。曰：何謂陽不足？答曰：假令寸口脈微，名曰陽不足，陰氣上入陽中，則洒淅惡寒也。曰：何謂陰不足？答曰：尺脈弱，名曰陰不足，陽氣下陷入陰中，則發熱也。

#### 【註釋】

- 1) 洒淅惡寒：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惡寒하는 것을 뜻한다.
- 2) 復：反也
- 3) 從：隨也
- 4) 乘：凌也

#### 【校勘】

敦煌本에는 “洒淅惡寒”이 “洗淅惡寒”으로 되어있고 “復”가 “后反”으로 되어 있으며 “寸口脈微，名曰陽不足，陰氣上入陽中，則洒淅惡寒也”이 “陽微，口陽不足，陰氣入陽，則惡寒”으로 되어 있다. 敦煌本과 玉函本에는 “曰：何謂”에서 “曰”이 모두 빠져있고 “名曰”은 “爲”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則洒淅惡寒也” “則

發熱也”에 “也”가 없다.

#### 【解釋】

문기를: 어떤 病은 오싹오싹 惡寒하면서 다시 發熱하는 것은 왜인가? 답하기를: 陰脈이 부족하여 陽이 가서 따르고; 陽脈이 부족하여 陰이 가서 탄다. 말하기를: 무엇을 陽不足이라 하는가? 답하기를: 가령 寸口脈이 微하면 陽不足으로 이름하는데, 陰氣가 陽中으로 上入하면 오싹오싹 惡寒하게 된다. 말하기를: 무엇을 陰不足이라 하는가? 답하기를: 尺脈이 弱하면 陰不足으로 이름하는데, 陽氣가 陰中으로 下陷하면 發熱하게 된다.

#### 【諸家學說 比較】

“陰脈不足，陽往從之。尺脈弱，名曰陰不足，陽氣下陷入陰中，則發熱也。”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이 치우쳐 不足하면 陽이 그것을 따르는데, 陽氣가 下陷하여 陰中으로 들어가 발열하게 되는 것으로, 柯<sup>20)</sup>는 맥이 不足하면 寒은 실제로 虛寒이고 熱은 虛熱이므로 尺脈이 약하면 血虛인데 陰脈이 不足하므로 上焦의 虛陽이 陰部로 下陷해서 發熱하는 것으로, 周<sup>23)</sup>는 陰氣는 大衰하고 陽氣는 獨盛하는 것으로, 張<sup>25)</sup>은 發熱은 陽이 勝한 것인데 陰脈이 부족하면 양이 가서 그 虛를 따르는 것으로, 魏<sup>26)</sup>는 陽氣가 過하면 盛한 氣가 陰氣의 不及에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마찬가지로 “陽脈不足，陰往乘之。假令寸口脈微，名曰陽不足，陰氣上入陽中，則洒淅惡寒也。”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陽이 치우쳐 不足하면 陰이 그것을 乘하는데, 陰氣가 위로 陽中으로 들어가 惡寒하게 되는 것으로, 周<sup>23)</sup>는 陽氣는 鬱伏하고 陰氣는 溢盛하는 것으로, 張<sup>25)</sup>은 惡寒은 陰이 勝한 것인데 陽脈이 부족하면 음이 가서 그 虛를 乘하는 것으로, 魏<sup>26)</sup>는 陰氣가 過하면 盛한 氣가 陽氣의 不及에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별히 盧<sup>17)</sup>는 처음에는 寸口脈이 먼저 微하여 陽不足이면 陰이 無損하면서 尺이 無虧하고 尺이 가득차서 寸으로 넘치고, 陰氣는 陽中으로 上乘하여 陽을 掩蔽하므로 惡寒이 생기고, 이때 尺中脈이 반대로 弱해져서 陰不足이 되는데, 양은 無損하면서 寸도 無休하고 寸이 가득차서 尺을 덮게 되고, 陽氣는 陰中으로 從下하여 陰을 掩蔽하므로 發熱이 생긴다고 하였다.

조문의 속성에 대하여 方<sup>15)</sup>은 太陽發熱惡寒을 밝힌 것으로 본 반면, 周<sup>23)</sup>가 內傷虛損의 脈으로 본 이래로, 柯<sup>20)</sup>는 外感의 惡寒發熱은 有餘하고 內因의 惡寒發熱은 不足한데 본 조문의 맥은 不足하므로 寒이란 虛寒이고 熱은 虛熱이며 본 조문의 가장 알맞은 처방으로는 補中益氣湯을 제시하였고, 吳<sup>27)</sup>는 內傷不足으로 陰陽이 相乘하여 休止하는 惡寒發熱이지 外感有餘로 風寒에 營衛가 傷했을 때는 休止가 없다고 구별하였고, 周<sup>32)</sup>도 外證이 內傷에 근본하고 있는데 外感과 서로 비슷하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李<sup>33)</sup>와 陳<sup>34)</sup>도 內傷不足의 惡寒發熱로 보고 있다.

4. 陽脈浮一作微，陰脈弱者，則血虛，血虛則筋急也。其脈沉者，榮氣1)微也。其脈浮而汗出如流珠者，衛氣2)衰也。榮氣微者，加燒針3), 則血留不行，更發熱而躁煩也。

#### 【註釋】

- 1) 榮氣：營氣이며 血液을 循環한다. 『靈樞·邪客』 “營氣는 津

液을 分泌하며, 脈에 注入되어 血로 變化된다. 四肢를 營하며 內部에서는 五臟六腑를 注하며 刻數에 應한다.”

2) 衛氣 : 『靈樞·邪客』 “衛氣는 세차고 빠른 기로서 나와 먼저 사지말단, 분육, 피부 사이를 쉬지않고 운행한다.” 『靈樞·本藏』 “衛氣는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실히 하며 주리를 치밀하게 하므로 개함을 주관한다.”

3) 燒針 : 火針을 뜻한다. 침에 숨을 에워싼 후 기름에 적셔 불을 붙이고 침이 빨강게 달구어지면 기름숨을 빼어내고 針刺하는 것으로 風寒筋急, 牽引痺痛, 癱瘓不仁을 치료한다.

【校勘】

玉函本에는 “一作微”와 “筋急也”의 “也”字가 없고, “榮”이 “營”으로, “榮氣微者”는 “營氣微”로, “則血留不行”는 “血留不行”으로 되어 있다.

【解釋】

陽脈이 浮하고 陰脈이 弱하면 血虛이고, 血虛하면 筋急하게 된다. 그 맥이 沉한 것은 榮氣가 微한 것이다. 그 맥이 浮하고 땀이 구슬이 흐르듯 나는 것은 衛氣가 衰한 것이다. 榮氣가 微한데 燒針으로 치료하면, 血이 멈춰서 운행하지 못하고 다시 發熱하면서 煩燥하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陽脈浮一作微, 陰脈弱”에 대하여 成<sup>14)</sup>은 衛氣強, 榮血弱으로, 張<sup>25)</sup>은 陽脈이 外에서 浮하여 內로 그 陰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黃<sup>28)</sup>, 周<sup>32)</sup>는 寸脈浮, 尺脈弱으로 이해하였다.

“其脈沉者, 榮氣微也.”에 대하여 成<sup>14)</sup>은 脈이 虛하면 血이 虛하여 脈沈을 榮血內微로, 方<sup>15)</sup>, 張<sup>25)</sup>, 周<sup>32)</sup>는 脈沈으로 裏를 보는데 榮은 脈中을 行하니 脈沈으로 榮微를 아는 것으로, 黃<sup>28)</sup>은 陰脈이 弱하다고 말했을뿐 浮하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脈沈한 것을 알 수 있고, 脈沈은 營氣가 微弱한데, 營氣가 微弱하면서 陽이 乘하므로 發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其脈浮, 而汗出如流珠者, 衛氣衰也.”에 대하여 成<sup>14)</sup>은 衛氣는 腠理와 開合을 관장하므로 汗出은 腠理不固, 開合不司해서 衛氣가 外衰하며, ‘衰’는 ‘微’보다 甚하므로 (여기서) 衛病이 榮病보다 심하여 陽氣外脫하는 것으로, 方<sup>15)</sup>, 張<sup>25)</sup>은 脈浮로 表를 보고 衛는 脈外를 行하는데 汗出하면 表不固하므로 衛衰를 아는 것으로, 黃<sup>28)</sup>은 (여기서) 陽脈의 浮는 陽盛이 아니고 衛氣가 衰한 것인데, 衛衰하면서 陰이 乘하므로 惡寒하는 것으로, 周<sup>32)</sup>는 外脫하는 것을 內에서 당기지 못하여 津液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며, 榮氣가 먼저 竭해서 陽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榮氣微者, 加燒針, 則血流不行, 更發熱而躁煩也.”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은 榮氣微는 陰虛로 熱을 生하는데 益陽損陰하는 燒針을 加하면 두 熱이 습하는 것으로, 張<sup>25)</sup>는 成<sup>14)</sup>, 方<sup>15)</sup>의 견해에 덧붙여 針은 經脈을 손상하므로 血의 흐름이 凝澁하는 것으로, 黃<sup>28)</sup>은 燒針을 加하면 血의 흐름이 燥結하는 것으로, 周<sup>32)</sup>는 燒針을 加하면 散寒하고 津液이 傷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5. 脈藹藹, 如車蓋者1), 名曰陽結也一云: 秋脈. 脈累累, 如循長竿者2), 名曰陰結也一云: 夏脈. 脈瞥瞥, 如羹上肥者3), 陽氣微也. 脈縈縈, 如蜘蛛絲者4), 陽氣衰也一云: 陰氣. 脈綿綿, 如瀉漆之絕者

5), 亡其血也.

【註釋】

1) 藹藹, 如車蓋者 : 藹藹(애애), 茂盛하며 2조의 陽結脈浮數을 참고하여 浮數한 상태를 뜻한다.

2) 累累, 如循長竿者 : 累累(루루), 強直하고 續 이어지며 2조의 陰結脈沈遲를 참고하여 沈遲한 상태를 뜻한다.

3) 瞥瞥, 如羹上肥者 : 瞥瞥(별별), 輕浮하며 국 위에 기름이 뜬 듯한 상태를 뜻한다.

4) 縈縈, 如蜘蛛絲者 : 縈縈(영영), 거미줄같이 微細한 상태를 뜻한다.

5) 綿綿, 如瀉漆之絕者 : 綿綿(면면), 連綿柔軟하고 옷칠을 쏟은 듯 끊어질 것 같으며 前大后細한 상태를 뜻한다.

【校勘】

“脈藹藹, 如車蓋者, 名曰陽結也一云: 秋脈.”이 敦煌本에는 “脈藹藹如車蓋, 名曰陽結.”로 되어 있고, 玉函本에는 “一云: 秋脈”이 없다. “脈累累, 如循長竿者, 名曰陰結也一云: 夏脈.”이 敦煌本에는 “累累如循長竿, 名曰陰結.”로 되어 있고 玉函本에는 “一云: 夏脈”이 없다. 敦煌本에는 “囁囁如吹榆莢, 名曰數”이, 玉函本에는 “脈囁囁如吹榆莢者, 名曰散也.”가 추가되어 있다. “脈瞥瞥, 如羹上肥者, 陽氣微也一云: 陰氣.”이 敦煌本에는 “瞥瞥如羹上肥者, 陽氣微.”로 되어 있고 玉函本에는 “一云: 陰氣”이 없고 “陽氣脫也.”로 되어 있다. “脈綿綿, 如瀉漆之絕者, 亡其血也.”이 敦煌本에는 “綿綿如瀉漆之絕者, 亡其血.”로 되어 있다.

【解釋】

맥이 왕성하여 (수레가 달릴 때 필력이며 솟구치는) 수레 덮개와 같은 것을 陽結이라 이름한다. 맥이 거듭 이어지는 것이 긴 장대를 어루만지는 듯한 것을 陰結이라 이름한다. 맥이 언뜻언뜻 보여 국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은 것은 陽氣가 微한 것이다. 맥이 微細하여 거미줄 같은 것은 陽氣가 衰한 것이다. 맥이 얽혀있어 옷칠을 쏟은 듯이 끊어질 듯한 것은 亡血한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脈藹藹, 如車蓋者, 名曰陽結也.”의 陽結의 脈狀에 대하여 成<sup>14)</sup>은 大而厭厭囁囁, 方<sup>15)</sup>은 浮旋於上, 盧<sup>17)</sup>는 濟濟飄搖(맑고 盛하게 나부끼고 흔들림), 張<sup>19)</sup>은 浮大而虛, 程<sup>22)</sup>은 浮數中有壅上之象, 張<sup>24)</sup>은 柔軟搖蕩, 虛浮於上, 吳<sup>27)</sup>는 浮大有力이라고 표현하여 대부분의 의가들이 浮數한 맥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方<sup>15)</sup>은 團聚貌(모이는 모양), 盧<sup>17)</sup>는 去來不移라 하여 ‘結’한 맥상의 속성을 附記하고 있는 반면, 程<sup>22)</sup>은 浮數中有壅上之象이라 하여 浮數한 중에 ‘메이여 올라오는’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맥의 虛實에 대하여, 張<sup>19)</sup>과 張<sup>24)</sup>은 浮大而‘虛’, ‘柔軟’搖蕩, ‘虛’浮於上으로 묘사하여 虛로 본 반면, 吳<sup>27)</sup>는 浮大‘有力’, ‘有力而盛’이라 하여 實로 보고 있는데, 2조의 “其脈浮而數,..此爲實, 名曰陽結.”의 연장선에서 보면 吳<sup>27)</sup>의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陽結”의 脈狀은 其浮數中有壅上之象 혹은 浮大有力한 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成<sup>14)</sup>이 표현한 大而厭厭囁囁에서 囁囁이란 『金匱要略』 244조의 防己茯苓湯證에서 “四肢囁囁動”이라 하여 근육이 경미하게 떨리는 모양을 형용한 바 있고,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浮脈을 설명하면서 “厭厭囁囁輕

汎貌”라고 인용하고 있는데, 厭厭은 편안하고 고요한 모양을, 聶聶은 나무 잎이 움직이는 모양을 형용하여, 厭厭聶聶은 ‘가볍게 뜨는 모양’을 형용한다.

“脈累累，如循長竿者，名曰陰結也。”의 陰結의 脈狀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連連而強直，方<sup>15)</sup>은 沈直於下，盧<sup>17)</sup>는 歷節而形不移，張<sup>19)</sup>은 弦而強直，程<sup>22)</sup>은 沈遲中有牢勁之象，張<sup>24)</sup>은 弦堅而澀，吳<sup>27)</sup>는 沈石有力으로 표현하여, 대부분의 의가들이 강[強]하고 곧[直]이며 가라앉은[沈] 脈象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程<sup>22)</sup>와 吳<sup>27)</sup>는 2조의 “其脈沈而遲... 名曰陰結.”과 연결하여 沈遲하면서 強直한 脈으로 보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陰結”의 脈狀은 其沈遲中有牢勁之象 혹은 沈遲石有力한 脈이다. 또한, 여기서 陽結, 陰結의 “結”字에 대해 盧가 去來不移로 이해한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脈瞥瞥，如羹上肥者，陽氣微也。”의 陽微의 脈狀에 대하여 成<sup>14)</sup>은 輕浮而陽微，方<sup>15)</sup>은 輕浮而若有若無，盧<sup>17)</sup>는 輕飄蕩洋，瞥瞥時乘，張<sup>19)</sup>은 仿佛虛濡然無力，程<sup>22)</sup>은 浮而衰之象，張<sup>24)</sup>은 浮泛於上，難以尋按，吳<sup>27)</sup>는 浮而無力으로 표현하여, 대부분의 의가들이 가볍게 뜨면서[輕浮] 힘이 없는[無力] 脈으로 보았으며, 있는 듯 없는 듯[若有若無], 잠깐씩 올라오며[瞥瞥時乘], 깊이 잡을 수 없는[難以尋按] 속성을 附記하고 있다. 특히 程<sup>22)</sup>와 吳<sup>27)</sup>는 4조의 “其脈浮... 衛氣衰.”와 연결하여 浮而衰之象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陽氣微”의 脈狀은 浮而無力이라고 할 수 있다.

“脈綦綦，如蜘蛛絲者，陽氣衰也。”의 陽衰의 脈狀에 대하여 成<sup>14)</sup>은 滯하여 얽히고 엉겼으며 至細로，方<sup>15)</sup>은 柔弱而極細，盧<sup>17)</sup>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무성하게 얽혀서 말려든 것[效蜘蛛絲之纖細，榮榮繞系而卷收]으로，張<sup>19)</sup>은 沈細欲絕，程<sup>22)</sup>은 沈而微之象，張<sup>24)</sup>은 細而極微，難以把握，吳<sup>27)</sup>는 細小하면서 깊이 잡기 어렵고 부중침에서 있는 듯 없는 듯[細小，難於尋按而浮中沈似有似無]으로 표현하여, 대부분의 의가들이 極細한 脈으로 보았다. 成<sup>14)</sup>은 “『內經』에서 말하길: 細는 氣少이니 지극히 細하면 陽衰가 된다.[內經曰: 細則氣少, 以至細爲陽衰宜矣.]”를 인용하면서 “陽氣衰”의 맥상을 極細한 맥으로 보았는데, 細欲絶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血少’를 의미하는 ‘細脈’과는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程<sup>22)</sup>은 (仲景이) 4조에서 榮氣微라고 말하고 본 조문에서 陽氣衰라고 한 것은, 榮이 비록 陰이지만 실제로는 陽氣가 主하는 바이므로 역시 陽氣衰로부터 말미암아 榮氣微한다고 하여, 4조의 “其脈沈者，榮氣微也.”와 연결하여 ‘沈而微’로 본 반면, 吳<sup>27)</sup>는 3조의 “假令寸口脈微，名曰陽不足.”과 연결하여 ‘細小，難於尋按而浮中沈似有似無’으로 본 차이점이 있다. 成<sup>14)</sup>의 ‘微’보다는 ‘衰’가 더甚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의견과 조문 본문의 ‘거미줄[蜘蛛絲]’이란 표현에 근거할 때, 陽微보다 더욱 虛하여 陽衰는 沈細欲絶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脈綿綿，如瀉漆之絕者，亡其血也。”의 亡血의 脈狀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張<sup>19)</sup>, 張<sup>24)</sup>은 前大而後細하고 그 病機는 陽氣有餘, 陰氣不足으로 본 반면, 盧<sup>17)</sup>는 前後大, 中央細로 보았고, 程<sup>22)</sup>은 4조의 “榮氣微者... 血留不行”과 연결하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며 곧 血流不行[欲絶不絶, 正肖夫血流不行之狀]’으로, 吳<sup>27)</sup>는 3,4조와 연결하여 沈而無力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亡血”의 脈狀은 前大後細하여 欲絶不絶한 脈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6. 脈來緩1), 時一止復來者, 名曰結. 脈來數, 時一止復來者, 名曰促一作: 縱. 脈陽盛則促, 陰盛則結, 此皆病脈.

#### 【校勘】

敦煌本과 玉函本에는 “復來” 다음에 “者”字가 없다. “脈來數, 時一止復來者, 名曰促一作: 縱”이 敦煌本에는 “脈來時數一止復, 名曰促”으로 되어 있고, 玉函本에는 “一作: 縱”이 없다. “脈陽盛則促, 陰盛則結, 此皆病脈.”이 “脈陽盛即促, 陰盛則緩, 病.”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脈來緩 : 맥박이 緩慢하게 뒹을 뜻한다.

#### 【解釋】

맥이 완만하면서 때로 한번씩 멎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結脈이라 이른다. 맥이 빠르게 뛰면서 때로 한번씩 멎었다가 다

표 2. 『傷寒論·辨脈法』 5조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대표적인 注釋

傷寒論	成無己	方有執	盧之頤	張璐	程應旂	張志聰	吳謙
陽結	譊譊 如車蓋	大而厭厭聶聶 陽氣鬱結於外, 不與陰氣和雜	團聚貌 浮旋於上	濟濟飄搖, 去來不移 別於連連鞞鞞往來	浮大而虛	2조: 脈浮數 浮數中有壅上之象	浮大有力 2조 陽結: 浮數, 有力而盛
陰結	累累 如循長竿	連連而強直 陰氣鬱結於內, 不與陽氣和雜	聯絡貌 沈直於下	歷節而形不移 別於如按琴瑟弦 cf. 弦: 如新強弓弦, 按之徑 直不移	體貼指下弦而強直	2조: 脈沈遲 沈遲中有牢勁之象	沈石有力 2조 陰結: 沈遲, 有力而盛
陽微	瞥瞥 如羹上肥	輕浮而陽微	過目暫見 輕浮而若有若無	輕飄蕩洋, 瞥瞥時乘, 陽氣隱隔征諸脈	仿佛虛濡然無力	4조 衛氣衰: 脈浮 浮而衰之象	浮而無力 4조 衛氣衰: 濡脈
陽衰	綦綦 如蜘蛛絲	滯, 若榮榮卷卷之不利 至細, 微爲陽微, 細爲陽衰	猶繞繞 柔弱而極細	效蜘蛛絲之纖細, 榮榮繞系而卷收	譬擬沈細欲絶	4조 榮氣微: 脈沈 沈而微之象	細小, 難於尋按而浮中沈 似有似無 3조 陽不足: 微脈
亡血	綿綿 如瀉漆之絶	連綿而軟 前大而后細 陽氣有餘, 而陰氣不足	前大而后細 陽氣有餘, 陰氣不足	欲絶不絶, 欲不絶若絶, 似非前大后細, 乃前后大, 中央細 引前却后, 再四而絶	描瀉前大后細之狀	4조 榮氣微; 血留不行 欲絶不絶, 正肖夫血流不行之 狀 4조: 血虛筋急, 血留不行	沈而無力 3조 榮氣微: 弱脈

시 뛰는 것을 促脈이라 이름한다. 陽이 盛하면 促脈이 나타나고, 陰이 盛하면 結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病脈이다.

【諸家學說 比較】

“緩”脈에 대하여 成<sup>14)</sup>은 一息할 때 脈이 平은 4至, 遲는 3至 한데 비해 遲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方<sup>15)</sup>은 平보다 느리고 遲보다 빠르며 徐緩하는 것으로, 張<sup>24)</sup>은 4至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周<sup>32)</sup>는 數로써 말하면 곧 遲로 보았다. “數”脈에 대하여는 成<sup>14)</sup>이 一息할 때 脈이 6至라고 언급한 이래 張<sup>24)</sup>이 동의할 뿐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가는 없다. “時一至”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陽의 氣가 相續할 수 없는 것으로, 張<sup>24)</sup>은 잠시 정지하여 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陰盛則結”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行은 緩한데 陰氣가 勝하여 陽과 相續할 수 없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陰氣有餘, 陽氣不足 즉 陽虛 陰盛으로, 魏<sup>26)</sup>는 陰氣가 勝하면 陽氣가 負하므로 緩하면서 無力한 것으로, 程<sup>21)</sup>은 脈氣의 結滯로, 周<sup>32)</sup>는 遲滯로 보고 (成<sup>14)</sup>의 이해는) 陽은 呼를 主하고 陰은 吸을 主하므로 脈來는 陽이고 脈去는 陰인데, 吸入한 후에 한번 조금 呼출한 때문에 한번 조금 吸入하여 陽氣의 鼓動이 微弱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陽盛則促”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陽行은 速한데 陽氣가 勝하여 陰과 相續할 수 없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陽氣有餘, 陰氣不足 즉 陰虛 陽盛으로, 魏<sup>26)</sup>는 陽氣가 勝하면 陰氣가 負하므로 數하면서 無力한 것으로, 方<sup>15)</sup>은 催促으로 短促과는 다른 것으로, 程<sup>21)</sup>은 脈氣가 短促하여 不能相續한 것으로, 周<sup>32)</sup>는 并迫으로 보고 (成<sup>14)</sup>의 이해는) 呼출한 후에 한번 조금 吸入한 때문에 한번 조금 呼出하여 陰氣의 接引이 微弱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별히 王<sup>16)</sup>은 促脈에 대하여 『傷寒論』 140조의 “太陽病, 下之, 其脈促一作縱, 不結胸者, 此爲欲解也.”을 들어 반드시 凶證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349조의 “傷寒脈促, 手足厥逆, 可灸之.”를 들어 반드시 陽盛에서 생기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고, 王<sup>16)</sup>은 雜病에 結促脈이 보이면 痰飲과 瘀血이 脈道를 따라 阻滯한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難治가 많다고 보완하였다.

“此皆病脈”에 대하여 方<sup>15)</sup>이 ‘오히려 可治’의 뜻을 강조하였듯이, 成<sup>14)</sup>은 傷寒의 結代脈은 動而中止하므로 不能自還하여 死脈임에 반해, 여기서의 結促脈은 陰陽偏勝에 그쳐 時有一止하지만 脫絶而止한 것은 아닌 것으로 구분하였고, 王<sup>16)</sup>은 結·促·代脈이 모두 動而中止하지만, 結·促脈은 自還하고 常數가 없으며 病脈인데 반해, 代脈은 不能自還하고 常數가 있으며 死脈으로 보았고, 章<sup>31)</sup>은 여기에 더하여 代脈은 脾損의 脈으로 보았다.

7. 陰陽相搏<sup>1)</sup>, 名曰動. 陽動<sup>2)</sup>則汗出, 陰動<sup>3)</sup>則發熱. 形冷惡寒者, 此三焦傷也. 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sup>4)</sup>者, 名曰動也.

【校勘】

敦煌本에는 “則”字는 “卽”으로 되어 있고, “者”는 없으며, “此三焦傷也”는 “此爲進”으로, “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者, 名曰動也.”은 “數脈見於關上, 無頭尾, 大如大豆, 厥厥動搖, 名爲動.”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陰陽相搏 : 陰氣와 陽氣가 서로 搏擊한 상태를 뜻한다.
- 2) 陽動 : 寸口部脈動을 뜻한다.
- 3) 陰動 : 尺部脈動을 뜻한다.
- 4) 厥厥動搖 : 有根不移한 動脈의 형상을 뜻한다.

【解釋】

陰陽이 서로 뒤섞이고 영향을 주는 것[搏擊]을 動이라 이름한다. 陽이 動하면 汗出하고 陰이 動하면 發熱한다. 身體가 冷하고 惡寒하면 이것은 三焦가 傷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關上에서 數脈이 보이고, 上下로 머리와 꼬리가 없으며 콩알만한 것이 짧게 짧게 動搖하는 것을 動脈이라 이름한다.

【諸家學說 比較】

“陰陽相搏, 名曰動.”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陽이 相搏하여 虛한 것이 動한 것으로, 方<sup>15)</sup>은 ‘搏’이란 圓攢攢聚(예워싸 모이는 것)로, 王<sup>16)</sup>은 陽이 降하고자 하지만 陰이 거기에 逆하고, 陰이 升하고자 하지만 陽이 거기에 逆하여, 兩者가 相搏하여 上下行할 수 없고 鼓擊之勢가 갑자기 높이 일어나 動脈의 形이 드러나는 것으로, 張<sup>24)</sup>은 動脈은 모두 陰陽不和와 관계가 있으므로, 三部를 贯通할 수 없으면서 虛한 것이 刑을 받으면 動하는 것으로, 程<sup>22)</sup>은 ‘動’이란 數하면서 緊을 겸하여 指下에서 擊하는 것으로 보고, 浮沈과 三部에 모두 이르면 動의 正體로 (1조에서 말한) 5개 陽脈에 속하고 邪氣實이 되며, 汗下法으로 分別할 수 있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陰陽이 모두 盛하여 서로 搏擊하면서 動脈이 되는 것으로, 魏<sup>26)</sup>는 陽이 不足하여 陰이 乘하면서 搏陰하면 沈한 곳에서 脈이 動하고, 陰이 不足하여 陽이 從하면서 搏陰하면 浮한 곳에서 脈이 動하며, 이처럼 모두 陰陽에 太過不及이 있어서 均平할 수 없기 때문으로, 黃<sup>28)</sup>은 陰陽이 相搏하여 二氣가 鬱勃하면서 動蕩하는 것을 動으로, 章<sup>31)</sup>은 陰陽이 升降出入을 할 수 없어서 서로 搏擊하여 上下로 相貫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맥의 兩傍이 擺動하는 것이 如豆大, 無頭尾한 것으로 보았다.

“陽動則汗出”에 대하여 龐<sup>12)</sup>은 關 부위를 6개로 나누어 前 3부분을 陽, 後 3부분을 陰이라 할 때, 寸과 이어진 陽 부위는 動하면서 陰 부위는 靜하면 마땅히 汗出하면서 풀리는 것으로, 成<sup>14)</sup>은 陽動은 陽虛가 되므로 汗出하는 것으로, 方<sup>15)</sup>은 陽動하면 陰이 따르므로[隨] 汗出하는 것으로, 張<sup>19)</sup>은 寸口에서 動하면 陽動이 되어 汗出하는 것으로, 程<sup>22)</sup>은 浮 부위에서나 寸口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陽動이라 하고 陽에 陰이 搏하여 汗出하고 衛虛하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陰陽의 搏擊에는 반드시 先後가 있어서 만약 陽氣가 먼저 動하면서 搏陰하면 汗出하는 것으로, 魏<sup>26)</sup>는 陰脈이 動하면 陰強陽弱하여 陽不固하면서 汗出하는 것으로, 黃<sup>28)</sup>은 陽氣가 動하면 陽升於陰하여 衛泄하면서 汗出하는 것으로, 章<sup>31)</sup>은 浮寸 부위는 陽이 되고 表를 主하므로 陽動하면 氣가 外泄하면서 汗出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陰動則發熱.”에 대하여 龐<sup>12)</sup>은 尺과 이어진 陰 부위는 動하면서 陽 부위는 靜하면 마땅히 發熱하는 것으로, 成<sup>14)</sup>은 陰動은 陰虛하므로 發熱하는 것으로, 方<sup>15)</sup>은 陰動하면 陽이 應하므로 發熱하는 것으로, 張<sup>19)</sup>은 尺內에서 動하면 陰動이 되어 發熱하는 것으로, 程<sup>22)</sup>은 沈 부위에서나 尺部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陰動이라 하고 陰에 陽이 搏하여 發熱하고 營弱하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陰

氣가 먼저 動하면서 搏陽하면 發熱하는 것으로, 魏<sup>26)</sup>는 陽脈이 動하면 陽強陰弱하면서 榮不斂하면 發熱하는 것으로, 黃<sup>28)</sup>은 陰氣가 動하면 陰閉於陽하여 營鬱하면서 發熱하므로, 動脈이 비록 陽脈 중의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陰陽을 함께 갖춘 것으로, 章<sup>31)</sup>은 沈尺 부위는 陰이 되고 裏를 主하므로 陰動하면 氣가 內鬱하면서 發熱하는 것으로 보았다.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에 대한 대표적인 注釋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傷寒論·辨脈法』 7조의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대표적인 注釋

醫家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
龐安時	(關의 前부분인) 陽部動 → 有汗而解	(關의 後부분인) 陰部動 → 發熱
成無已	陽虛	陰虛
方有執	陰隨	陽應
張璐	寸口에서 動	尺內에서 動
程應旆	浮 or 寸口에서 動, 陽爲陰搏 → 衛虛	沈 or 尺部에서 動, 陰爲陽搏 → 榮弱
張志聰	陽氣先動 → 搏陰	陰氣先動 → 搏陽
魏荔彤	陽不足 → 陰升搏陽 → 陰強陽弱 → 陽不固	陰不足 → 陽從搏陰 → 陽強陰弱 → 榮不斂
黃元御	陽升於陰 → 衛泄	陰閉於陽 → 營鬱
章楠	浮寸爲陽 → 主表, 氣外泄	沈尺爲陰 → 主裏, 氣內鬱

“形冷惡寒者, 此三焦傷也.”에 대하여 龐<sup>12)</sup>은 크게 汗을 낸 후[大汗後]의 死證으로, 成<sup>14)</sup>은 三焦는 原氣의 別使로 行氣於陽을 主하는데, 三焦가 이미 損傷되면 陽氣가 不通하면서 微弱한 것으로, 張<sup>19)</sup>은 汗出發熱치 않으면서 반대로 形冷惡寒한 것은 三焦眞火가 傷한 것으로, 程<sup>22)</sup>은 汗出發熱치 않으면서 반대로 形冷惡寒한 것은 動脈이 關上에서만 나타날 뿐 尺寸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 關部가 假有餘하여 上下의 眞氣가 不足하므로 三焦傷이 되며, 元氣가 虛衰하여 溫分肉할 수 없는 것으로, 張<sup>24)</sup>은 만약 陽動한데 無汗하고 陰動한데 無熱하면서 단지 形冷惡寒한 것은 三焦의 陽熱한 氣가 外出하여 溫肌肉, 充皮膚할 수 없는 것으로, 魏<sup>26)</sup>는 三焦의 裏氣가 損傷된 것으로, 黃<sup>28)</sup>은 三焦의 陽氣가 損傷된 것으로, 章<sup>31)</sup>은 氣의 升降出入은 반드시 三焦로부터 말미암는데 三焦가 傷하면서 表裏가 不和한 것으로 보았다.

“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者, 名曰動也.”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關은 陰陽의 가운데[中]로 (이러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陰陽의 氣가 相搏하는 것으로, 王<sup>16)</sup>은 반드시 關上에서 나타나는 것은 關이 陽出陰入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陰陽이 升降往來하면서 相搏하면 動脈이 關에 나타나는 것으로, 張<sup>19)</sup>은 動脈이 비록 關上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尺寸에도 역시 나타날 수 있으며, 본문의 ‘若’字로 볼 때 한가지 사례를 든 것일 뿐으로, 程<sup>22)</sup>은 ‘上下無頭尾, 如豆大’는 ‘短而縮’이고, ‘厥厥動搖’는 ‘擺動無勢力’으로, 魏<sup>26)</sup>는 콩처럼 形이 둥글고 손가락에 응하여 有力하고, 홀로 數하지 않고 滑을 겸한 것은 動脈의 形象이며, 動脈이 關에서 浮取하면 陽動으로, 關에서 沈取하면 陰動으로, 黃<sup>28)</sup>은 動이란 中에서 氣가 鬱滯하여 升降할 수 없는 것이며 關으로 中焦를 보는데, 陰이 升하고자 하지만 脾土가 虛하면서 升할 수 없고, 陽이 降하고자 하지만 胃土가 弱하면서 降할 수 없으면 陰陽이 關上에서 鬱滯되어 動形을 드러내므로, 上下無頭尾, 如豆

大, 厥厥動搖는 陰陽이 虛弱하여 升降할 수 없는 상태로, 章<sup>31)</sup>은 動脈이 關上에서 나타나는 것은 中焦病이며 三焦가 모두 병든 것으로 보았다.

8. 陽脈浮大而濡, 陰脈浮大而濡, 陰脈與陽脈同等者, 名曰緩<sup>1)</sup>也.

#### 【校勘】

敦煌本에는 “脈浮大濡, 陰浮, 與陽同等, 故名之爲緩”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陰脈與陽脈同等者”이 “陰與陽同等者”로 되어 있다.

#### 【註釋】

1) 緩 : 和緩하고 한호흡에 4번 이르는 상태를 뜻한다.

#### 【解釋】

陽脈이 浮하고 大하면서 濡軟하고, 陰脈이 浮하고 大하면서 濡軟한데, 陰脈과 陽脈이 같은 것을 緩脈이라 이른다.

#### 【諸家學說 比較】

“陽脈浮大而濡, 陰脈浮大而濡”의 “陽脈”과 “陰脈”에 대하여 成<sup>14)</sup>, 章<sup>31)</sup>은 寸口와 尺中으로, 魏<sup>26)</sup>는 左右診으로 보았다. “浮大而濡”에 대하여 周<sup>23)</sup>는 ‘浮大’는 學之(浮取)를, ‘濡’는 按之(沈取)로, 張<sup>24)</sup>은 ‘浮大’는 陽이고, ‘浮大而濡’는 陽中有陰으로, 魏<sup>26)</sup>는 ‘濡’는 柔軟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濕邪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濕邪의 濡는 寒濕水飲이 모두 細緊을 겸하고 濕熱은 數을 겸하지만, 여기서의 濡는 홀로 나타나며 和柔한 象이므로 濕邪에서 말하는 濡가 아닌 것으로, 章<sup>31)</sup>은 ‘濡’는 柔軟少力인데, 風邪가 疏泄하면서 榮氣가 이로 인해 散漫하므로 맥이 ‘浮大而濡’하고 緩이라 이르는 것으로, 周<sup>32)</sup>는 ‘浮’는 氣가 揚함을, ‘大’는 勢가 盛하고 起伏高下가 有力함을, ‘濡’는 形體가 調和로움으로 이해하였다.

“陰脈與陽脈同等者”에 대하여 成<sup>14)</sup>은 寸口와 尺中이 동등하다는 것은 偏勝한 바가 없고 음양의 氣가 和緩하다는 것이며 遲緩한 脈의 邪氣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周<sup>32)</sup>는 위에서 아래까지 調和로운 것으로 보았다.

“名曰緩也”에 대하여 王<sup>16)</sup>은 緩에는 ‘遲緩’의 뜻과 ‘和緩’의 뜻이 있는데, 緩은 獨陰이 아니라 陽도 있으며, 獨陽이 아니라 陰도 있어서 양자가 合해서 體를 이루고, 陰陽이 섞여서[雜] 和를 이루어 그 色은 黃, 顔은 光, 聲은 商, 毛髮은 長하여 沖氣가 넘치는[洋溢] 것이며, (戴氏의 말을 인용하여) 매번 中部 혹은 下部間에 居할 때 柔軟하면서 漫하고 단지 沈에서 小하며 診脈하면 緩軟한 것은 ‘有邪之診’으로 ‘不及의 緩’이고; 陰陽의 氣가 調和로워서 陽寸과 陰尺의 上下가 동등하며 동일하게 浮大而軟하고 偏盛함이 없는 것은 ‘無邪之診’으로 ‘陰陽이 和緩한 緩’이며, 緩脈과 遲脈은 相類인데, 遲脈은 一息三至하고; 緩脈은 一息四至하는 것으로, 周<sup>23)</sup>는 緩은 和緩有情한 것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모양이고, 遲緩을 이르는 것이 아니며, 陽脈과 陰脈을 말하여 浮大而濡로써 平人의 맥을 개괄한 것은 각 부분에 胃氣가 반드시 겸해 있어 부분부분마다 緩한 것이며, 陰陽同等을 말하여 개괄한 것은 三菽, 六菽에서 十二菽까지 각각 相等치 않고 取法의 輕重에 따라 不等하지만, 오직 不等한 가운데서 診脈하여 浮大而濡에서 總合하면 緩으로 總結하는 것으로, 張<sup>24)</sup>은 緩은 和緩舒徐이지 數, 動, 結, 促이 아니며, (一息에) 四至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魏<sup>26)</sup>는 平人의 맥은 한번 호흡에 4至하는데, 遲數간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것이 緩이다. 陰陽이 中和하면 緩脈이 응하는데, 緩에는 有力無力과 兼浮兼沈의 논의가 있다. 예컨대 陰脈陽脈을 좌우에서 진맥하여 모두 浮하면서 大하면 有力함을 알 수 있고, 겸하여 濡脈이 나타나면 有力하면서 和柔함을 알 수 있다. 浮에서 大가 나타나는데, 소위 濡한 맥이 浮沈取에서 겸하여 나타나고, 소위 大가 또한 沈取에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바야흐로 有根이 된다. 浮取에서 大하면서 浮하고, 沈取에서 直硬弦緊이 나타나면 浮大는 充進하면서 조화로운 맥이 아니다. 반드시 沈取에서 濡가 겸하여 나타나면 浮取는 不陷하고, 中取는 不弱하며, 沈取는 有根한데, 이것을 ‘無病의 平脈’이라고 할 수 있다. 緩은 中和이고 소위 胃氣이며 陰陽偏盛의 脈과는 다른데; 遲는 3息 1止하여 크게 늦고 止를 동반하면 病脈이며; 緩에 가까운 약간 遲한 것은 아직 病脈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으로, 吳<sup>27)</sup>는 緩脈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和緩의 緩은 맥이 有力柔軟하고 不大不小한 것으로 形狀이 緩하여 陰陽의 調和를 徵驗하고, 至數의 緩은 맥이 (一息에) 四至從容하고 不徐不疾한 것으로 至數가 緩하여 胃氣의 調和를 徵驗하는 것으로, 章<sup>31)</sup>은 緩에는 和緩과 縱緩의 구별과 浮緩과 沈緩의 구분이 있는데, 和緩이란 浮中沈에서 停勻하여 胃氣無病의 맥이고; 縱緩이란 弛緩한 것으로, 예를들어 浮大而濡하다면 沈取시에는 반드시 弱한데, 이것은 風邪가 두드러진 鼓[所鼓]로, 寒邪로 인한 緊脈의 收束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周<sup>32)</sup>는 緩脈은 단지 長하면서 濡하고 가리런[條略]하면서 柔和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9. 脈浮而緊者, 名曰弦也. 弦者狀如弓弦, 按之不移也. 脈陰者, 如轉索無常<sup>1)</sup>也.

【校勘】

敦煌本에는 “夫脈浮緊, 名爲弦. 脈緊者, 如轉索無常.”로 되어 있고, 脈經本에는 “弦脈, 舉之無有, 按之如弓弦狀. 夫脈浮而緊 乃弦狀 如弓弦 按之不移.”로 되어 있으며, 桂林本에는 “脈弦而緊者, 名曰革也. 弦者狀如弓弦, 按之不移也; 緊者如轉索無常也.”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脈陰者”가 “脈緊者”로 되어 있다.

【註釋】

1) 轉索無常 : 緊急有力하며 있다 없다하여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解釋】

맥이 浮하면서 緊한 것을 弦脈이라 이름한다. 弦脈은 활줄을 누르는 감각이며, 만져도 옮겨가지 않는다. 緊脈은 마치 새끼줄이 꼬여있는 듯하고 일정하지 않다.

【諸家學說 比較】

周<sup>32)</sup>는 앞조(8조)의 緩脈과 (본 조문의) 弦脈을 비교하여 모두 長하지만 濡와 緊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張<sup>25)</sup>은 다음조(10조)와 연계하여 “浮而緊”은 弦과 實이 되고, “弦而大”는 虛와 革이 되는 것으로, 成<sup>14)</sup>은 『脈經』을 인용하여 弦脈은 虛, 緊脈은 實로 보고, 緊脈의 “按之不移”의 不移는 不足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脈浮而緊者, 名曰弦也”에 대하여 周<sup>23)</sup>는 傷寒의 浮緊은 누르면[按之] 不緊하므로 ‘浮緊’이라 하고, (여기서의) 浮緊脈은 누

르면[按之] 不移하므로 弦인 것으로, 吳<sup>27)</sup>는 ‘浮緊’이 곧 弦脈이 아니라, ‘浮而勁緊’이 弦脈의 形狀으로, 王<sup>16)</sup>은 『素問·玉機眞藏論』에서 “春脈如弦”을 설명하면서 “其氣來奕弱, 輕虛而滑, 端直以長, 故曰弦”이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春脈은 肝에 응하여) 陰中有陽한데, 浮는 陽, 緊은 陰으로 陽이면서 陰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며, ‘浮’字는 ‘奕弱輕虛’의 네글자로 이해하였다.

“弦者狀如弓弦, 按之不移也.”에 대하여 吳<sup>27)</sup>는 ‘端直’, 王<sup>16)</sup>은 ‘端直而長’으로, 方<sup>15)</sup>은 “按之不移”는 활줄이 당겨져서 일정하면서 이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脈緊者, 如轉索無常”에 대하여 吳<sup>27)</sup>, 王<sup>16)</sup>은 ‘不端直’한데, 弦과 緊이 勁急한 것은 같지만 端直과 轉索은 상반되는 것으로, 方<sup>15)</sup>은 “轉索無常”을 좌우로 돌아 구르면서 잡을 수 없는 것으로, 周<sup>32)</sup>는 대개 緊은 寒이 되고, 寒邪가 外束하면 熱이 內鬱하므로 脈勢가 盛하면서 振撼하지만, 만약 內外가 모두 寒하면 細緊하면서 振撼할 수 없는데, “如轉索無常”은 새끼줄[索]의 急響뿐만 아니라 새끼줄을 꼬을 때 새끼줄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튕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10. 脈弦而大, 弦則爲減, 大則爲芤1). 減則爲寒, 芤則爲虛. 寒虛相搏, 此名爲革2). 婦人則半產, 漏下, 男子則亡血, 失精.

【校勘】

敦煌本에는 “脈弦而大, 弦卽爲藏, 大卽爲空. 藏卽爲寒, 空卽爲虛. 寒空相搏, 脈卽爲革. 婦人卽半產, 漏下, 男子卽亡血.”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則”字가 “卽”으로 되어 있고 “此名爲革.”이 “脈卽爲革.”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芤 : 葱管처럼 浮沈脈은 有力하나 中取하면 無力한 상태를 뜻한다.
- 2) 革 : 浮大하고 勁急有力하나 눌러 잡으면 不足한 상태를 뜻한다.

【解釋】

맥이 弦하면서 大한데, 맥이 弦한 것은 (陽氣가) 減한 것이고, 맥이 大한 것은 芤한 것이다. (陽氣가) 減하면 寒이 되고, 芤하면 虛가 된다. 寒과 虛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革脈이라 이름한다. 부인이면 半產, 漏下하고 남자이면 亡血, 失精한다.

【諸家學說 比較】

“弦則爲減, 減則爲寒”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王<sup>16)</sup>, 章<sup>31)</sup>은 陽氣少로, 虛<sup>17)</sup>는 弦은 陰을 이름하고 陽減하므로 寒한 것으로, 張<sup>25)</sup>은 弦은 純陰, 減은 氣少가 되어 陰盛하면 陽虛하고 氣少하면 寒한 것으로, 吳<sup>27)</sup>는 弦은 勁이 되어 그 中取의 勁을 減하고 밖으로 急한 象으로, 周<sup>32)</sup>는 弦은 弓弦不移와 같은데, 不移하면 來去가 멀지 않아서 陽氣가 衰損하여 減하고, 減하면 陰이 上에서 潛하여 寒이 되며, 上이 寒할수록 더욱 勁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大則爲芤, 芤則爲虛”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王<sup>16)</sup>, 章<sup>31)</sup>은 陰血不足으로, 虛<sup>17)</sup>는 大는 陽을 이름하고 陽芤하므로 虛한 것으로, 張<sup>25)</sup>은 大는 純陽, 芤는 血空이 되어 陽盛하면 陰虛하고 血空하면 虛한 것으로, 吳<sup>27)</sup>는 ‘大’는 脈形이 粗大有力하고, ‘芤’는 浮沈有力하지만 中取에는 無力하여 마치 葱管[葱管]와 같은 것인데,



大는 實이 되어 그 中取의 實을 줄이고 속이 비어 있는 象으로, 周<sup>32)</sup>는 大는 形體寬大한데, 寬大하면 下空하면서 扪가 되고 扪하면 內에서 血脫하면서 虛가 되며, 內가 허할수록 더욱 空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革”에 대하여 成<sup>14)</sup>은 이미 寒한데 또 虛하면 氣血이 바뀌어 [改革] 常度を 따르지 않는 것으로, 方<sup>15)</sup>은 常度を 바꾼[革易常度] 것으로, 王<sup>16)</sup>은 옛것을 고쳐서 새로운 것을 따르는 뜻으로 이해하여, 저 虛寒이 停留하여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으면 옛적에 充溢했던 사람이 지금은 바뀌어 勞傷枯槁해지는 것으로, 盧<sup>17)</sup>는 革은 북가죽[鼓革]으로 걸은 단단하면서 속은 비어있고 단지가 장자리만 실하므로 ‘弦而大’하지만 營脈 가운데는 비어 있는 것으로, 張<sup>24)</sup>은 革脈은 外勁內空하여 鼓革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張<sup>25)</sup>은 밖은 단단한데 속은 비어[外硬中空] 북가죽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방에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보관하던 물건이 자연히 漏失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吳<sup>27)</sup>는 革脈은 북가죽으로 이름한 것으로 밖은 急하고 속은 비어 있는 象으로, 牢脈은 沈하면서 大하고 누르면 勁急有力한데 반해, 革脈은 浮하면서 大하고 擧之하면 勁急有力한 차이가 있는데, ‘弦減’과 ‘扪虛’의 두 맥이 革脈을 形容하는 것으로, 章<sup>31)</sup>은 輕按하면 皮革같이 急하고, 重按하면 空한 것으로 보았다.

“婦人則半產, 漏下”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血虛로, 方<sup>15)</sup>은 婦人의 陰血이 不足하여 陰의 資生이 안되는 것으로, “男子則亡血, 失精”에 대하여 成<sup>14)</sup>은 眞陽減으로, 方<sup>15)</sup>은 男子의 陽精이 不足하여 陽의 資始가 안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남녀를 막론하고 盧<sup>17)</sup>는 有陽無陰하기 때문으로, 張<sup>24)</sup>은 弦減大扪하면서 精血兩虛하기 때문으로, 周<sup>32)</sup>는 脫血의 類로 보았다.

## 고 찰

1조는 宋本 傷寒論의 冠에 해당하는 「辨脈法」 편의 첫 조문으로서, 陰陽으로 脈을 변별하는 총강으로 삼고, 陰陽脈에 따라 질병 예후의 好惡을 추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脈象 중에서 大, 浮, 數, 動, 滑을 陽으로, 沈, 澀, 弱, 弦, 微을 陰으로 분류한 것은, 亢奮, 升浮, 發散하는 상태를 陽脈에, 抑制, 沈潛, 收斂하는 상태를 陰脈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음양의 분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문에서는 글자만으로 그 맥의 속성을 알 수 있는 脈象을 제시한 반면, 이후의 조문들에서는 본 조문의 단순맥상을 복합하여 맥의 특성을 서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통 음양속성의 분류를 나열할 때는 對句를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데, 음양 각 다섯 개의 맥상을 나열하면서 특별한 대구를 이루지는 않고 있다. 특히 陽의 맥상으로 數이 있는 반면, 陰의 맥상으로 遲가 빠져 있고 비슷한 弱과 微가 중복되어 있는데, 桂林本에서 弱이 遲로 대체된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陽脈과 陰脈의 분류에 대하여 成<sup>14)</sup>이 平脈과 비교하여 有餘한 맥상을 陽으로, 不及한 맥상을 陰으로 이해한 이래, 후대의 陰陽에 대한 분석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변별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의가들간에 크게 상충되지는 않는다.

“凡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의 陰病과 陽病에 대하여 成 등<sup>14,15)</sup>은 三陰三陽의 病으로, 程 등<sup>22,26)</sup>은 藏府의 病으로, 章<sup>31)</sup>은 陰陽經의 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辨脈法」 편이 『傷寒論』의 冒頭이므로 기본적으로는 三陰三陽의 病 즉 專屬表裏로 보는 것이 맞겠으나, 후대로 갈수록 三陰三陽의 실체에 대하여 장부, 경락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辨脈法」 편이 『金匱要略』 등을 포괄하여 맥을 변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張<sup>25)</sup>의 “무릇 맥과 병을 말하는데, 대개를 말한 것이지 오로지 傷寒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曰凡脈, 曰凡病, 乃概言之, 非專指上寒也]”는 언급처럼 현재의 일반적인 陰證, 陽證 또는 吳<sup>27)</sup>의 陰寒, 陽熱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病과 脈의 陰陽이 상반될 때 生死가 나뉘는데 대하여, 成 등<sup>14,17,22)</sup>은 邪氣가 裏에 있는 陰病에서 邪氣가 外表를 향할 때는 陽脈이 나타나며 예후가 좋은 등 사기의 向勢를 위주로 설명한 반면, 方 등<sup>15,25)</sup>은 인체내 生殺之氣로서의 陰陽으로 이해하여 陰病에 陽脈이 드러나는 것을 “陰消而陽長”하므로 生陽之氣를 얻어 살 수 있다는 등 인체 正氣의 消長으로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成<sup>14)</sup>이 예로든 327조의 “厥陰中風の 病에서 脈이 微浮하게 나타나는 것은 好轉될 徵兆이다.[厥陰中風, 脈微浮爲欲愈, 不浮爲未愈]”나 李<sup>33)</sup>가 예로든 212조의 “(陽明腑實證에서) 脈象이 艱澀不利하면 죽을 징후이다.[脈澀者死]”의 예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조에서는 陽結, 陰結의 脈과 證 및 病情이 極盛해지는 日數를 推斷하고 있다. 1조에서 脈과 病의 陰陽이 상반될 때 生死가 나뉘는 것을 언급한데 이어서, 본 조문에서는 脈과 病의 陰陽이 동일하게 偏向되어 結滯된 病을 서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조에서 陰結과 陽結의 脈狀을 다시 새롭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2조와 5조를 따로 나누어서 기술한 의의를 찾기 어렵다.

“脈浮數”은 陽脈이고 “能食, 不大便”은 陽病으로 陽氣가 結滯되어 “陽結”이 되고, “脈沈遲”는 陰脈이고 “不能食, 身體重, 大便反鞮”은 陰病으로 陰氣가 固結하여 “陰結”이 되는 기전에 대하여 成<sup>14)</sup>의 陰陽氣가 偏固하여 不相雜하므로써 結滯가 되는 것으로, 張<sup>25)</sup>의 陰陽이 不和하여 純陰, 純陽한 것으로, 章<sup>31)</sup>의 陰陽氣가 偏亢하여 輪化하지 못한 등의 설명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陽結의 “不大便”과 陰結의 “大便反鞮”은 비슷한 증상이 陰陽氣의 偏盛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陽結의 “能食, 不大便”은 陽熱이 偏勝하면서 陰液은 不足하므로 熱盛으로 “能食”하면서도 陽邪가 內結하여 津液이 不足하고 腸胃가 燥結하여 氣機가 阻滯하므로 大便不通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陰結의 “大便反鞮”에 대하여 成 등<sup>14,21,23-25)</sup>은 陰氣가 偏勝하여 結固한 것으로, 章 등<sup>31,32)</sup>은 陽虛하므로 溫煦하지 못해 陰寒하고 津液이 不足한 것으로, 方<sup>15)</sup>은 (陽結이 中風으로 인해 不大便을 보이는데 반해) 傷寒으로 인한 胃實인 것으로, 程<sup>22)</sup>은 陰으로 偏勝되어 無陽으로 化氣할 수 없으므로 無火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陰氣 자체의 結聚나 陰寒으로 인해 陽氣가 부족하여 不氣化한 것으로 보는 것과 陰寒으로 인해 津液不足한 것으로 보는 차이점이 있다. 陽結은 津液不足으로 不大便의

보다甚한 증상이, 陰結은 不氣化로 大便硬의 보다 輕하지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傷寒論』 190조의 “陽明病에 능히 먹을 수 있다면 中風이라 하고, 능히 먹을 수 없다면 中寒이라 한다.[陽明病, 若能食, 名中風; 不能食, 名中寒]”와 191조의 “陽明病에 만약 寒邪를 感受한 것이라면 不能食하고 … 장차 固瘕가 되려는 것으로 … [陽明病, 若中寒者, 不能食…此欲作固瘕…]” 등과 연계할 수 있으며, 李<sup>33)</sup>의 “陽結은 병이 陽明에 있고, 陰結은 병이 太陰에 있다”는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

“陽結은 17일이면, 陰結은 14일이면 더 심해진다”는 구절에 대한 제가의 주석은 三陰三陽의 傳經順序에 의거하여 나름의 타당성을 얻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의 推算은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再經을 넘어 3순환하는 過經의 단계라면, 『傷寒論』에서 언급하는 일반적인 日數와 비교하여 질환의 상당히 후반단계에서 陽結, 陰結이 나타나거나 극심해진다는 것과 본 조문이나 陰結, 陽結의 병증이 三陰三陽病 즉 傷寒病을 염두에 두고 기술되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조는 惡寒發熱의 脈象 특징과 병리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조에서 陰陽偏勝으로 인한 陰結, 陽結을 기술한데 이어 본 조문에서는 陰陽偏虛로 인한 惡寒發熱의 脈象과 병리기전을 문답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方<sup>15)</sup>은 2조는 陽明內實을, 본 조는 太陽發熱惡寒을 설명한 것으로, 周<sup>32)</sup>는 2조는 偏陰偏陽의 證이 안으로 나타난 것이고, 본 조는 陰陽互乘의 證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조문의 기전 설명에 成<sup>14,23)</sup>은 음양의 偏虛에, 張<sup>25,26)</sup>은 음양의 交勝에 주요점을 둔 것으로 차이를 말할 수 있으나<sup>34)</sup>, 陰은 盛하여 寒하고 下에 위치하고, 陽은 盛하여 熱하고 上에 위치하다가 한쪽이 不足해지면 다른쪽이 부족해진 쪽으로 이동하면서 盛한 쪽 속성의 한열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서 대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조문의 문답형식을 제하고 재정리해 보면, 환자 증상은 “漸惡寒而發熱, 寸口脈微, 尺脈弱”이고, 그 병리기전은 “假令寸口脈微, 名曰陽不足, 陽脈不足, 陰往乘之, 陰氣上入陽中, 則漸惡寒也. 尺脈弱, 名曰陰不足, 陰脈不足, 陽往從之, 陽氣下陷入陰中, 則發熱也”로 설명한 것이다. 중간의 병리기전을 생략하면, 寸口脈微 = 陽不足 = 惡寒, 尺脈弱 = 陰不足 = 發熱이 된다. 즉, 陽이 不足하면 惡寒하고 陰이 不足하면 發熱하는 것이다.

4조는 맥의 浮沈으로 榮衛의 병기와 증후를 변별하고 있다. 본 조문은 3조의 陰陽脈과 연결된 조문으로 볼 것인지와 조문 내의 선후 구문간에 연계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병렬관계로 볼 것인지가 해석의 관건이 된다. 趙開美本 傷寒論의 원문은 3조와 4조가 짝 이어진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成<sup>14)</sup>, 方<sup>15)</sup>, 張<sup>25)</sup> 등은 본 조문을 따로 떼냄은 물론 조문 내의 각 문장마다 개별 조문으로 처리하여 주석을 달므로써 각 문장간 독립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즉 成<sup>14)</sup>은 “陽脈浮, 陰脈弱”을 “衛氣強, 營血弱”으로 주석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傷寒論』 12조의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翕

翕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와 95조의 “太陽病, 發熱, 汗出者, 此爲榮弱衛強, 故使汗出. 欲救邪風者, 宜桂枝湯.”를 통한 陽浮=衛強, 陰弱=營弱의 도식과 일치하는 것이나, 본 조문의 “其脈浮… 衛氣衰也”와는 대치된다. 따라서, “陽脈浮一作微, 陰脈弱者, 則血虛, 血虛則筋急也.”는 ‘맥을 통해 血虛를 변별<sup>25)</sup>한 문장이고, 뒤의 “~榮氣微也; ~衛氣衰也. ~更發熱而躁煩也.”는 또다른 인체상황을 묘사한 문장이 되며, ‘微’보다는 ‘衰’가 더甚하므로 汗出如流珠는 陽氣外脫하여 衛病이 榮病보다 심한 것으로 이해하였고<sup>14,15)</sup>, ‘맥을 통해 榮衛의 衰微를 변별<sup>25)</sup>한 문장이 된다. 반면, 黃<sup>28)</sup>과 周<sup>32)</sup>는 본 조문을 한덩어리의 의미있는 결합체로 볼 뿐 아니라 3조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여 陽脈을 寸脈, 陰脈을 尺脈으로 보고, 陽脈의 浮는 陽盛이 아니라 衛氣가 衰한 것이고, 陰脈이 弱하다고 말했음뿐 浮하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脈沈한 것으로 보아, 본 조문 冒頭의 “陽脈浮, 陰脈弱”을 “寸脈浮虛, 尺脈沈弱”으로 이해하여 寸脈浮虛는 衛氣衰로, 尺脈沈弱은 榮氣微로 본 조문의 아래 구문들을 연계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 결국 張<sup>24)</sup>의 언급처럼, 본 조문에서 脈의 陰陽을 寸尺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浮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조문간 문장간 연계성과 일관성에서는 寸尺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나, 玉函本처럼 개별 조문으로 파악하고 글자대로 이해하여 浮沈으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5조는 2,3,4조에서 그 脈과 證을 논의한 陽結, 陰結, 陽微, 陽衰, 亡血에 대하여 형용사의 반복과 사물과의 비유를 통해 순전히 脈象만을 변별하고 있다. 다만, 詩의으로 표현된 文辭가 古奧하고, 비유된 사물의 속성에 한계가 있으며, 앞선 조문의 정확히 어느것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역대의가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脈藹藹, 如車蓋者, 名曰陽結也.”에서 藹(우거질 에)를 반복한 藹藹(에)란 일반적으로 ①초목 따위가 무성한 모양 ②맑고 성한 모양 ③힘을 다하는 모양 ④달빛이 흐릿한 모양 등을 형용하는데, 여기서는 ‘맑고 무성한 모양’을 형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車蓋란 후대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덮개가 아니라, (漢代의 馬車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 우산 모양의 덮개가 수레가 달릴 때 필력이며 솟구치는 모양을 형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2조에서 “其脈浮而數… 此爲實, 名曰陽結也.”의 浮數 즉 陽이 浮盛한 것과 상통하고, 成<sup>14)</sup>의 크면서 가볍게 뜬다[大而厭厭聶聶], 方<sup>15)</sup>의 위로 떠돈다[浮旋於上], 盧<sup>17)</sup>의 맑고 성하게 나무끼고 흔들린다[濟濟飄搖], 程<sup>22)</sup>의 浮數한 가운데 메이어 올라온다[浮數中有壅上]는 표현과도 일치한다. 다만, 陽氣가 鬱結한 상황이므로 나무겨 흩어지는 형상이 아니라, 方<sup>15)</sup>의 모이는 모양[團聚貌]이거나 盧<sup>17)</sup>의 맥의 오감이 이동치 않는[去來不移] 형태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조의 본문에서 陽結을 實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張<sup>19)</sup>은 浮大而虛, 張<sup>24)</sup>은 柔軟搖蕩, 盧<sup>17)</sup>浮於上라 하여 ‘虛’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2조의 注釋에서 程<sup>22)</sup>은 “陽結은 陽에 치우쳐서 陰으로 滋液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은 水가 없기 때문이다[陽結者, 偏於陽而無陰以滋液, 責其無水].”, 張<sup>24)</sup>은 “陽氣가 固結함은 소음이 主하는 세 기운이 위로 적시지 못하여 劇하는 것인데, 이것은 心이 주관하는 神氣가 內虛하고 少陰의 氣가 위로 陽과 交濟하지 못하여 陽結

이 된 것이 이와 같다[陽氣固結, 少陰三主氣而不能上濟, 則當劇矣, 此心主神氣內虛, 少陰之氣不上交於陽而爲陽結者如此].”고 한 것처럼, 清代에 들어서면서 命門學說이 확립됨에 따라 陰陽은 獨盛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한쪽이 虛할 때 상대적으로 盛해진다는 개념에서 일종의 水火未濟의 상황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음양의 원초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吳<sup>27)</sup>의 浮大有力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림 1. 漢代의 馬車와 車蓋.

“脈累累, 如循長竿者, 名曰陰結也.”에서 累累(여러 루)를 반복한 累累(루루)란 일반적으로 ①치저서 초라한 모양 ②실망한 모양 ③새끼로 잇달아 팬 모양, 주렁주렁한 모양 ④쌓아올린 모양 등을 형용하는데, 긴 막대기를 어루만지는 것 같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조에서 “其脈沈而遲… 名曰陰結.”의 沈遲와 상통하고, 成<sup>14)</sup>의 쭉 이어지면서 強直하다[連連而強直], 方<sup>15)</sup>의 연결되고 아래에서 沈直[聯絡貌, 沈直於下], 張<sup>19)</sup>의 弦而強直, 程<sup>22)</sup>의 沈遲中有牢勁之象, 吳<sup>27)</sup>의 沈石有力 등의 표현과도 일치하게 된다.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結脈을 설명하면서 “중경이 말하길: 거듭 이어지는 것이 긴 낚시대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맥을 ‘陰結’이라 하고, 表盛하여 마치 車蓋와 같은 것을 ‘陽結’이라.[仲景有: 累累如循長竿, 曰陰結; 藹藹如車蓋, 曰陽結]”하여 본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脈瞥瞥, 如羹上肥者, 陽氣微也.”에서 瞥(감작할 별)은 후대에 澌(물고기 오라가락할 별)로 改字되어 인용되기도 하는데, 澌澌(별별)은 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모양을 형용하며, “끓는 국위의 고깃점[羹上肥]” 같이 언뜻언뜻 떠보이는 모양을 형용한다고 볼 수 있고, 3조의 “假令寸口脈微, 名曰陽不足”과 4조의 “其脈浮, … 衛氣衰也.”와 상통하며, 成<sup>14)</sup>의 輕浮而陽微, 方<sup>15)</sup>의 輕浮而若有若無, 盧<sup>17)</sup>의 輕飄蕩洋, 瞥瞥時乘, 張<sup>19)</sup>의 仿佛虛濡然無力, 程<sup>22)</sup>은 浮而衰之象, 張<sup>24)</sup>은 浮泛於上, 難以尋按, 吳<sup>27)</sup>는 浮而無力과도 일치한다.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는 微脈의 體狀相類詩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여 “微脈은 輕微하여 물고기 헤엄치듯[微脈輕微瞥瞥乎]”이라고 표현하였다.

“脈縈縈, 如蜘蛛絲者, 陽氣衰也.”에서 ‘縈縈[縈(엮힐 영)], ‘如蜘蛛絲’의 표현은 成<sup>14)</sup>이 병렬했듯이 ‘엮여있다[滯, 若縈縈惹惹之不利]와 ‘至細’하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方<sup>15)</sup>은 감긴 것처럼 柔弱하면서 極細하다[猶繞繞, 柔弱而極細], 盧<sup>17)</sup>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무성하게 엮혀서 말려든 것[效蜘蛛絲之纖細, 縈縈繞系而卷收]으로 표현했으나, 清代로 내려가면서 張<sup>19)</sup>은 沈細欲絕, 程<sup>22)</sup>은 沈而微, 張<sup>24)</sup>은 細而極微, 難以把握 등으로 이해한 것처럼

‘至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며, 沈한 속성이 새로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陽氣衰가 陽氣微보다 虛가 더욱甚한 맥상이므로, 맥을 깊게 눌렀을 때만 겨우 보이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程<sup>22)</sup>은 4조의 “其脈沉者, 榮氣微也.”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본 조문에서 陽氣衰라고 한 것은, 榮이 비록 陰이지만 실제로는 陽氣가 主하는 바이므로 역시 陽氣衰로부터 말미암아 榮氣微하다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다. 반면, 吳<sup>27)</sup>는 3조의 “假令寸口脈微, 名曰陽不足.”과 연결하여 ‘細小하고 깊이 눌러 찾지 어려워면서 浮中沈부위에서 있는 듯 없는 듯[細小, 難於尋按而浮中沈似有似無]’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李<sup>38)</sup>는 본 조문의 본문에서 “陽氣衰也一云:陰氣.”라 하여 ‘한 판본에서는 陰氣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현존하는 다른 판본에서 그 典據를 찾을 수는 없으나)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仲景의 『傷寒論』에서는 일반적으로 微는 氣衰에서, 細는 血少에서 사용되어, 예컨대 少陰陽衰陰盛인 『傷寒論』 317조의 通脈四逆湯證, 389조의 四逆湯證에서 脈微欲絕이, 厥陰血虛寒凝인 351조의 當歸四逆湯證에서 脈細欲絕로 표현된 점을 들고 있다.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微脈의 體狀相類詩의 설명에서도 “중경이 말하길: 脈搏이 물고기가 헤엄치듯, 끓는 국위에 고깃점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듯 하는 脈狀은 陽氣가 微弱한 현상이고, 명주실이 얽혀 있는 것처럼 細한 맥상은 陰氣가 微弱한 현상이니, 久病에 보이면 죽게 되고, 新病에 보이면 살 수 있다[仲景曰: 脈澌澌如羹上肥者陽氣微; 縈縈如蠶絲細者陰氣衰. 長病得之死, 卒病得之生.]”고 인용한 점을 볼 때, 본 조문을 陰氣衰로 이해한 의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少陰病의 提綱條文인 281조의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에서 보듯이 陽虛로 微脈일 때는 細를 겸할 수 있으므로, “陽虛는 微脈, 陰虛는 細脈”과 같은 도식적인 이해는 임상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3조의 “寸口脈微, 名曰陽不足.”과 연결하여 이해한 吳<sup>27)</sup>의 견해가 더욱 타당할 것이다.

“脈綿綿, 如瀉漆之絕者, 亡其血也.”에서 綿(이어질 면)을 반복한 “綿綿(면면)”과 “옷칠을 쏟은 듯이 끊어질 듯한[如瀉漆之絕]”에 대하여 成<sup>14)</sup>, 方<sup>15)</sup>, 張<sup>19)</sup>, 張<sup>24)</sup>등은 前大后細로 본 반면, 盧<sup>17)</sup>는 前大后細한 것 같으나 아니고[似非前大后細] 前後大, 中央細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程<sup>22)</sup>은 4조의 “榮氣微者… 血留不行”과 연결하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며 곧 血流不行[欲絕不絕, 正尙夫血流不行之狀]’으로 보았는데, 綿綿이란 표현과 점착성이 있는 漆의 속성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吳<sup>27)</sup>는 “前營氣微之弱脈”이라 하여 沈而無力으로 이해하였는데, 3조의 “尺脈弱, 名曰陰不足”과 4조의 “其脈沈者, 榮氣微也”을 복합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문의 5개의 개념과 脈狀을 2,3,4조의 어떤 용어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程<sup>22)</sup>과 吳<sup>27)</sup> 등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陽結, 陰結은 동일한 용어인 2조의 그것들과 연결되나, 陽微, 陽衰, 亡血은 3조의 陽不足, 陰不足, 4조의 衛氣衰, 榮氣微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었기에 정확한 지칭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程<sup>22)</sup>은 陽微, 陽衰, 亡血이 4조의 衛氣衰, 榮氣微, 榮氣微과 연결된 것으로 본

반면, 吳<sup>27)</sup>는 3조의 陽不足, 陰不足을 포괄하여 이해하고 있다. 연결한 조문에 따라, 陽氣衰를 程<sup>22)</sup>은 沈而微로, 吳<sup>27)</sup>는 細小로, 亡其血을 程<sup>22)</sup>은 血流不行으로, 吳<sup>27)</sup>는 沈而無力으로 이해하는 차이를 낳게 되었다.

표 4. 陽氣微, 陽氣衰, 亡其血에 대한 의가들의 연계구문 비교

조	句文	程應旄	張志聰	吳謙
3조	寸口脉微, 名曰陽不足			陽氣衰=細小
	尺脉弱, 名曰陰不足			(亡其血)
4조	其脉浮, ... 衛氣衰也.	陽氣微=浮而衰		陽氣微=浮而無力
	其脉沈者, 榮氣微也	陽氣衰=沈而微		亡其血=沈而無力
	血虛則筋急也... 榮氣微者, 加燒針, 則血留不行, 更發熱而躁煩也.	亡其血=血流不行	亡其血=血虛筋急, 血留不行	

6조는 結脈과 促脈의 맥상과 병리기전을 변별하고 있다. 본 조문은 “結”은 “脈來緩, 時一止復來”한데 그 병기는 “陽盛”이고, “促”은 “脈來數, 時一止復來”한데 그 병기는 “陰盛”이며, 모두 “病脈”으로 기술되어, 상호대칭적이면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맥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緩’, ‘數’ 등의 속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成<sup>14)</sup>이 一息할 때 脈이 平은 4至, 遲는 3至, 緩은 遲보다 조금 빠르고, 數은 6至로 규정한 이래로 의가들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陰盛則結, 陽盛則促”에 대하여 成<sup>14)</sup>은 陰陽氣 중 하나가 勝하면 다른 쪽이 相續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데 반해, 張<sup>24)</sup>과 魏<sup>26)</sup>는 陰盛陽虛, 陽盛陰虛의 음양의 對待관계로 이해하여 그 맥상이 緩而無力, 數而無力할 것임을 추단하는데 이르고, 程<sup>21)</sup>은 脈氣의 結滯와 短促하여 不能相續으로, 周<sup>32)</sup>는 遲滯와 并迫으로 보아서 ‘結’과 ‘促’이라는 원글자의 뜻을 되살려 이해하고 있다. 또한 王<sup>16)</sup>은 『상한론』 조문(140조, 349조)을 예로들어 促脈이 반드시 凶證으로 발전하는 것도, 반드시 陽盛에서 생기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한론』에 促脈이 나오는 다음 4개 조문을 살펴보면, 3개의 조문에서 誤下한 후에 正氣가 저항하여 病位病勢가 上焦에 머물 때이고, 眞寒假熱의 厥陰病人 349조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辨脈法」 2조에서 “陽氣下陷入陰中”이라 하여 陽氣가 上焦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陽盛을 반드시 陽熱로 해석치 않더라도 上焦가 盛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傷021. 太陽病, 下之後, 脉促胸滿者, 桂枝去芍藥湯主之.

傷034. 太陽病, 桂枝證, 醫反下之, 利遂不止. 脉促者, 表未解也. 喘而汗出者, 葛根黃芩黃連湯主之.

傷140. 太陽病, 下之, 其脉促一作縱, 不結胸者, 此爲欲解也.

傷349. 傷寒脉促, 手足厥逆, 可灸之.

7조는 動脈의 形象과 병리기전을 변별하였다. 張<sup>24)</sup>의 언급처럼, 6조는 陽盛則促, 陰盛則結을, 본 7조는 陰陽相搏則動을, 다음의 8조는 陰陽同等則緩을 기술한 것이다. 본 조문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陰陽相搏”에서 “此三焦傷也”까지는 動脈의 병기와 증후를, “若數脈見於關上”에서 “名曰動也”까지는 動脈의 形狀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陽動”을 ‘寸口動’, “陰動”을 ‘尺中動’으로 보아서 “若數脈見於關上”의 ‘關上動’과 대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陰陽相搏, 名曰動.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에서 ‘陰陽相搏’을 ‘名曰動’이라 정의하고서는 다시 ‘陰動’, ‘陽動’에 대한 증후를 제시하므로써, 반복된 陰陽, 動에 대한 정확한 지칭에 대하여 여러 의가들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다.

“陰陽相搏, 名曰動.”의 ‘搏’ 자체에 대해서는 方<sup>15)</sup>이 ‘에워싸 모이는 것[圍捏攢聚]’으로 설명한 이래 다른 견해를 제시한 의가는 없으나, 成<sup>14)</sup>, 張<sup>19)</sup>, 程<sup>22)</sup>, 魏<sup>26)</sup>黃<sup>28)</sup> 등은 ‘陰陽이 相搏’하여 어느 한쪽이 虛해져서 動하는 것으로 본 반면, 王<sup>16)</sup>, 張<sup>24)</sup>, 章<sup>31)</sup> 등은 陰陽이 모두 盛하여 서로 搏擊하면서 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王<sup>16)</sup>과 章<sup>31)</sup>은 陰陽이 升降할 수 없어서 서로 搏擊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動脈의 虛實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이어지는 句文의 병리기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陳<sup>34)</sup>은 陰陽皆盛說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動脈은 1조에서 말한 5개의 陽脈 중의 하나인데, 만약 主虛한다면 陽性 脈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둘째, 動脈과 滑脈은 유사하고, 실제로는 動脈에 반드시 滑脈을 兼하는데, 滑脈은 流動不居하고 動脈은 動而不移하여 所謂 厥厥動搖하는 것은 動脈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이다. 動脈이 動搖하는 것이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동하지 않는 것은, “陰陽上搏”의 搏이란 圍捏攢聚인데, 陰陽이 한꺼번에 搏擊圍聚하여 動而不移하므로, 關脈을 사례로 들어 關部가 滑數한 것이 豆와 같고 손가락 아래에 敲擊之勢가 있는데, 어떻게 虛가 있겠는가? 셋째, 動脈은 陰陽相搏으로 말미암으므로 汗出, 發熱 등은 반드시 陰陽의 쌍방과 모두 관련이 있지 절대로 단일한 방면일 수 없다. 이로 보건대, 形冷惡寒은 三焦陽虛라는 것은 이치상 부합될 수 없고, 陰陽相搏이 較劇하여 三焦의 陽氣가 外로 通達할 수 없는 假寒의 증상이며, 본질상 實熱에 속한다.”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의 ‘陰陽’에 대하여 部位說<sup>12,15,19,22,31)</sup>과 二氣說<sup>14,24,26)</sup>로 나뉘 볼 수 있다. 陰陽을 部位로 본 龐<sup>12)</sup>은 關 부위를 6등분하여 앞의 3부분은 陽, 뒤의 3부분은 陰으로 구분하여 寸口와 이어진 (關의) 陽 부분이 動하면서 陰 부분은 靜한 것을 陽動으로 이해하였고, 方<sup>15)</sup>과 張<sup>19)</sup>은 動於寸口를 陽動, 動於尺中을 陰動으로, 程<sup>22)</sup>과 章<sup>31)</sup>은 浮取沈取 혹은 寸尺으로 이해하였다. 陰陽을 二氣로 본 成<sup>14)</sup>은 陽動하면 陽虛, 陰動하면 陰虛로, 張<sup>24)</sup>과 黃<sup>26)</sup>은 陽氣動, 陰氣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본 句文을 部位說로 보면 “寸口中에서 動하면 汗出하고; 尺中에서 動하면 發熱한다.”로, 二氣說로 보면 “陽氣가 動하면 汗出하고; 陰氣가 動하면 發熱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汗出’과 ‘發熱’의 병리기전에 대해서는 諸家の 확설이 다양한데, 원문에서 ‘陽’이 動하면 (일반적으로 陰에 속하는) ‘汗’이 出하고, ‘陰’이 動하면 (일반적으로 陽에 속하는) ‘熱’이 發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搏’과 ‘動’의 주어와 목적어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陽動則汗出”을 예로 들어 보면, 龐<sup>12)</sup>은 (關의 前부분인) 陽 부위가 動하면 (병증이 아니라) 땀이 나면서 풀리는[有汗而解] 것으로, 成<sup>14)</sup>은 陽虛로, 方<sup>15)</sup>은 陰이 따르는[隨] 것으로, 程<sup>22)</sup>은 陽에 陰이 搏하여 衛虛한 것으로, 張<sup>24)</sup>은 陽氣가 먼저 動하

면서 搏陰한 것으로, 黃<sup>28)</sup>은 陽升於陰하여 衛泄한 것으로, 章<sup>31)</sup>은 氣가 外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魏<sup>26)</sup>는 원문과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陽이 不足하여 陰이 升하면서 搏陽하면 沈取한 脈에서 動이 나타나는데, 陰脈이 動하면 陰強陽弱하여 陽不固하면서 汗出하고; 陰이 不足하여 陽이 從하면서 搏陰하면 浮取한 脈에서 動이 나타나는데, 陽脈이 動하면 陽強陰弱하면서 榮不斂하면 發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方<sup>15)</sup>은 相搏의 陰陽은 二氣를 말하고, 陽動陰動的 陰陽은 部位를 말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形冷惡寒者, 此三焦傷也.”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가들이 (앞선 구문에서 제시된) ‘汗出’, ‘發熱’의 증상이 없이 반대로 “形冷惡寒”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動脈에 대하여 主虛說을 견지하는 成<sup>14)</sup>, 張<sup>19)</sup>, 程<sup>22)</sup>, 魏<sup>26)</sup>, 黃<sup>28)</sup>은 元氣의 別使인 三焦의 陽氣가 傷하여 分肉을 溫하지 못하기 때문에, 陰陽皆盛說을 주장하는 張<sup>24)</sup>은 三焦의 陽熱한 氣가 外出한 것으로, 章<sup>31)</sup>은 表裏가 不和한 것으로 본 차이점이 있다. 현대에도 李<sup>33)</sup>는 三焦의 陽氣가 손상된 것으로 보는 반면, 陳<sup>34)</sup>은 (앞서 밝힌 것처럼) 陰陽相搏이 較劇하여 三焦의 陽氣가 外로 通達할 수 없는 假寒의 증상이며, 本질상 實熱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자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者, 名曰動也.”에 대하여 成<sup>14)</sup>과 王<sup>16)</sup>은 關이 陰陽升降의 가운데이므로 陰陽이 相搏한 것으로, 黃<sup>28)</sup>은 陰陽이 虛弱하여 升降할 수 없으므로 陰陽이 (中에 해당하는) 關上에서 鬱滯된 것으로, 章<sup>31)</sup>은 中焦病으로 三焦가 모두 傷한 것으로 보고 있다. 動脈이 나타나는 부위로 王<sup>16)</sup>, 魏<sup>26)</sup>, 黃<sup>28)</sup>은 (본 구문에서 언급한) 關上에서만 나타난다고 보는 반면, 張<sup>19)</sup>과 章<sup>31)</sup>은 본 구문에서는 한가지 사례를 든 것일뿐 寸尺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動脈의 脈象에 대하여 程<sup>22)</sup>은 數而兼緊으로, 魏<sup>26)</sup>는 數兼滑有力으로 이해하였다. 李<sup>33)</sup>는 動脈과 數脈은 同類이나, 數脈은 寸關尺에서 모두 나타나는 반면 動脈은 혹은 關上에서 혹은 寸口에서 혹은 尺部에서 나타나고, 動脈과 滑脈은 類似하나, 滑脈은 圓滑流利하면서 不居한데 반해 動脈은 動而不移한 것으로 구별하였다.

본 조문과 관련하여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動脈을 설명하면서 “動脈은 數한 脈象이 關部에 나타나 上下로 頭尾가 없고, 마치 콩 모양으로 둥근 것이 짧게 짧게 動搖한다.[動乃數脈見於關上下無頭尾 如豆大厥 厥動搖], 體狀詩에서 “動脈은 흔들흔들 數한 맥이 關部에 있고, 머리와 꼬리 없이 콩처럼 둥글지. 본시 陰陽相搏이 근원이니, 虛한데는 動搖하나 實한데는 靜安하지.[動脈搖搖數在關 無頭無尾豆形團 其原本是陰陽搏 虛者搖兮勝者安], 主病詩에서 “動脈은 疼痛과 驚悸를 專司하고, 寸動은 汗出하고, 尺動은 發熱하지, 或 泄利와 拘攣이 되기도 하고, 남자의 亡精과 여자의 崩中이 되기도 한다네.[動脈專司痛與驚 汗因陽動熱因陰 或爲洩痢拘攣病 男子亡精女子崩]”라고 인용하고 있다.

8조는 緩脈의 形狀을 설명하고 있다. 6조의 陰陽偏勝은 結과 促이 되고, 7조의 陰陽相搏은 動이 된데 비해, 본 조문의 陰陽同等 즉 陰陽氣和는 緩이 된 것이다<sup>14)</sup>. 陰脈과 陽脈이 모두 浮大而濡하면서 同等하면 緩脈이라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陰

脈과 陽脈의 정확한 지칭과 ‘同等’의 개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1조에서 음양맥의 분류에 나열되지 않았던 ‘濡’와 ‘緩’의 맥이 등장하며, 陽脈을 대표하는 浮와 大가 陰의 속성인 濡한 맥과 陰脈과 陽脈에서 같이 나타나고, 본 조문의 平인의 和緩한 맥이 桂枝湯證으로 대표되는 太陽表虛證의 浮緩한 맥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역대 의가들의 설명이 분분한 것을 볼 수 있다.

“陽脈”과 “陰脈”에 대하여 成<sup>14)</sup>과 章<sup>31)</sup>은 寸口와 尺中으로, 魏<sup>26)</sup>는 左右診으로 이해한 반면, 다른 의가들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앞선 조문들과의 연속선상에서 寸口와 尺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浮大而濡”에 대하여 周<sup>23)</sup>는 擧之와 按之(沈取)로 진맥시의 단계를 나누고 있으나, 굳이 그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張<sup>24)</sup>은 陽中有陰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周<sup>32)</sup>는 ‘浮’는 氣가 揚함음, ‘大’는 勢가 盛하고 起伏高下가 有力함음, ‘濡’는 形體가 調和로움으로, 魏<sup>26)</sup>는 (일반적인) 濕邪의 濡는 寒濕水飲으로 모두 細緊을 겸하고 濕熱은 數을 겸하지만 여기서의 濡는 홀로 나타나며 和柔한 象으로 구별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陰脈與陽脈同等者”에 대하여 成<sup>14)</sup>, 王<sup>16)</sup>, 章<sup>31)</sup>은 寸尺脈의 동등으로, 周<sup>23)</sup>는 단지 한부위만이 아닌 각 부위의 總合의 동등으로, 魏<sup>26)</sup>는 左右脈의 동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同等”하다는 기술이 脈形이라면, 앞서 陽脈이 浮大而濡하고 陰脈이 浮大而濡하다고 언급하고서는 다시금 동어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寸口와 尺中 보다는 左右의 脈勢가 同等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즉 ‘浮大而濡’한 陽脈·陰脈은 寸口와 尺中으로, ‘同等’한 陽脈·陰脈은 左脈과 右脈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타 조문과 연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緩脈”에 대하여 모든 의가들은 平인의 和緩한 맥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원문에서 “浮大”한 맥상은 陽에, “濡”軟한 맥상은 陰에 속하므로, 陰陽脈이 모두 浮大而濡하면서 同等할 경우는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어 偏勝한 바가 없이 調和로운 맥상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緩脈은 營氣不足, 衛氣有餘로 밖으론 風邪와 濕邪, 안으론 脾虛, 上體엔 項強, 下體엔 痺證과 痿證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지만, 본 조문의 “緩”을 대부분의 의가들은 遲脈이 아니라 和緩으로 보고 있는데, 王<sup>16)</sup>의 ‘有邪之診’과 ‘無邪之診’, 吳<sup>27)</sup>의 ‘形狀之緩’과 ‘至數之緩’, 章<sup>31)</sup>의 ‘和緩’과 ‘縱緩’의 구별과 王<sup>16)</sup>의 遲脈과 緩脈, 魏<sup>26)</sup>의 緩脈, 遲脈, 濡脈, 陳<sup>34)</sup>의 虛脈과의 비교는 緩脈의 形狀과 屬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9조는 弦脈의 形狀과 弦脈과 緊脈의 鑑別을 제시하고 있다. 송본(정확하게는 趙開美本)에서는 “脈陰者, 如轉索無常也”로 되어 있으나, 『金匱要略』 145조(「腹滿寒宿食病脈證治」 25조)에 “脈緊如轉索無常者, 有宿食也.”가 나오므로, 타 판본들과 역대 주가들 모두 “脈緊者”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脈陰者”는 “脈緊者”의 誤記로 받아들임이 타당할 것이다. 본 조문은 弦脈의 맥상을 ‘浮而緊’으로 제시하고서는, 다시 弦脈은 “狀如弓弦, 接之不移”로, 緊脈은 “轉索無常”으로 대비시켜 비교하여 감별점을 제시하고 있다.

弦脈의 虛實 속성에 대하여 成<sup>14)</sup>은 『脈經』을 인용하여 虛

로, 張<sup>25)</sup>은 다음조(10조)와 연계하여 實로 이해하고 있는데, 弦脈은 실제로 實證과 虛證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脈浮而緊者, 名曰弦也”에서 ‘脈浮緊’은 『傷寒論』 46조, 55조 등에서 제시된 麻黃湯證의 대표적인 맥상이므로, 周<sup>23)</sup>는 浮取시에 느껴지는 傷寒病의 緊脈과 대비하여 弦脈은 원문의 ‘按之不移’로 구별하고 있으며, 吳<sup>27)</sup>는 ‘浮而勁緊’으로 부연하여 ‘勁’한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

“弦者狀如弓弦, 按之不移也. 脈緊者, 如轉索無常也.”에서 弦脈은 활시위가 당겨져서 긴장된 듯하고 누르면 움직이지 않는데 반해, 緊脈은 새끼줄을 꼬은 듯하고 일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었는데, 王<sup>16)</sup>과 吳<sup>27)</sup>는 『素問·玉機真藏論』에서 弦脈의 형상으로 언급한 ‘端直以長’을 인용하여 弦과 緊이 勁急한 것은 같지만 弦의 端直과 緊의 轉索으로 대비하여 이해하고 있다. 周<sup>32)</sup>가 “轉索無常”을 ‘새끼줄을 꼬을 때 새끼줄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튕기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문과 관련하여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弦脈을 설명하면서 “弦脈은 端直하면서 長하다. 잡아당긴 활줄 같다. 맥박을 누르면 이동하지 않고, 거문고나 비파의 絃을 누르듯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 脈狀이 箏의 絃과 같다. 脈搏의 가운데를 端直하게 통과하여 指端에 감촉되는 것이 뚜렷하다.[絃脈端直以長(素問). 如張弓絃(脈經). 按之不移綽綽如按琴瑟絃(巢氏). 狀若箏絃(脈訣). 從中直過挺然指下(刊誤)], 相類詩에서 “弦脈은 端直하게 脈氣가 와서 마치 絲絃과 같고, 緊脈은 노끈이 左右로 치는 것 같네.[絃來端直似絲絃, 緊則如繩左右彈]”라고 인용하고 있다.

10조는 革脈의 形狀과 그 병리기전 및 주된 病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문은 『金匱要略』 86조(「血痺虛勞病脈證并治」 12조), 282조(「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8조), 387조(「婦人雜病脈證并治」 11조)에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 387조에는 “旋覆花湯主之”가 附記되어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본 「辨脈法」 편이 현재 『傷寒論』의 冒頭에 있으나, (仲景의 원저작인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傷寒病만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지는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원문에서는 脈이 弦而大한데, 弦→減→寒하고, 大→芤→虛하여 虛寒한 것을 革脈으로 그 병리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弦則爲減, 減則爲寒”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sup>14-17, 25, 31, 32)</sup>은 陽氣少로 보았는데, 특히 盧<sup>17)</sup>, 張<sup>25)</sup>은 脈弦이 陰의 속성을 나타내어 陰盛하므로 陽減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周<sup>32)</sup>는 앞 조(9조)에서 말한 弦脈의 ‘不移’한 형상에서 陰性의 근거를 밝혀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大則爲芤, 芤則爲虛”에 대하여 많은 의가들<sup>14-16, 25, 31, 32)</sup>은 陰血不足으로 보았는데, 盧<sup>17)</sup>는 陽芤로 虛한 것으로 본 반면, 張<sup>25)</sup>은 大가 純陽을 나타내고, 芤는 血空하여 虛한 것으로, 周<sup>32)</sup>는 大는 形體寬大를 나타내고, 下空으로 芤하여 血脫한 것으로 이해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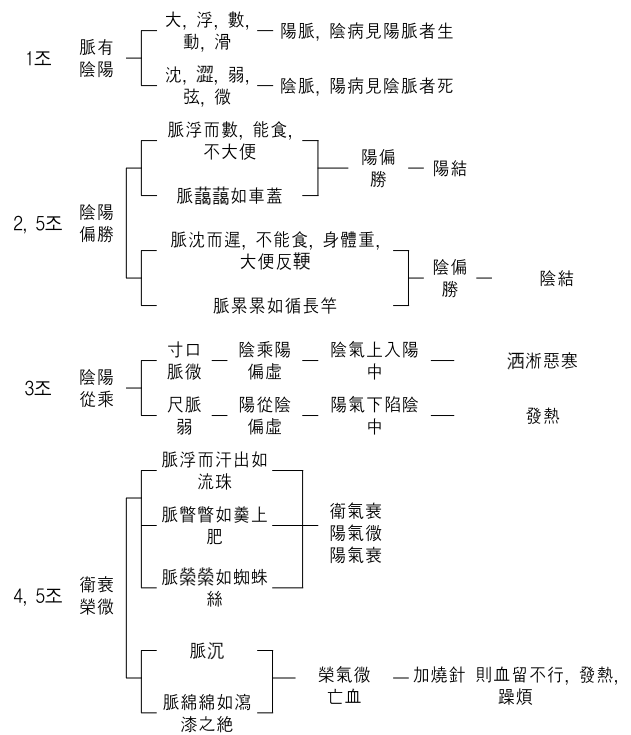
“此名爲革”에서 ‘革’에 대하여 金代에서 明初까지의 의가인 成<sup>14)</sup>, 方<sup>15)</sup>, 王<sup>16)</sup>은 ‘改革’, ‘革易’, ‘改故從新’의 뜻인 病理機轉을 의미하는 단어로 받아들여 血이 變易되면 그 常度を 改革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후대의 盧<sup>17)</sup>, 張<sup>24)</sup>, 張<sup>25)</sup>, 吳<sup>27)</sup>, 章<sup>31)</sup>은 북가죽[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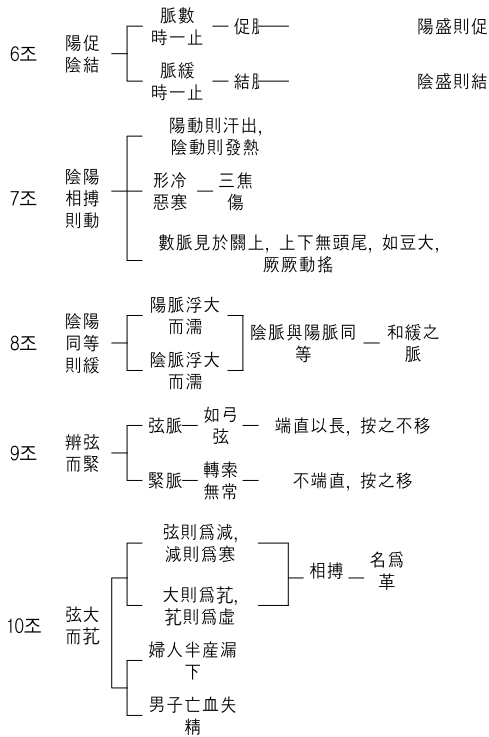
革]과 같이 밖은 단단하면서 속은 비어있는 맥의 形狀으로 해석하였다. 脈義와 脈形 모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나, 앞 조문들에서 사물의 형상을 빗대어 맥상을 설명한 전례로 볼 때, 脈形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婦人則半產, 漏下, 男子則亡血, 失精”에 대하여 成<sup>14)</sup>과 方<sup>15)</sup>은 婦人은 陰血虛로, 男子는 陽不足으로 대별하고 있으나, 盧<sup>17, 24, 32)</sup>은 남녀를 막론하고 陰血不足類로 보고 있다. 앞서 “弦則爲減, 減則爲寒”에서 虛寒한 속성이 있으므로 陽虛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陽虛에서도 脫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기전에서는 대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조문과 관련하여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革脈을 설명하면서 “革脈은 弦하면서 芤하다. 마치 북가죽을 누르는 것 같다.[革脈絃而芤(仲景). 如按鼓皮(丹溪).]”, 體狀主病詩에서 “革脈은 形狀이 북가죽 누르는 것 같으니, 芤弦이 相合한 脈으로 虛寒한 證候다. 여인에겐 半產과 崩漏病이요, 남자에겐 營虛와 夢遊病이라네.[革脈形如按鼓皮 芤絃相合脈寒虛 女人半產并崩漏 男子營虛或夢遺.]”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傷寒論·辨脈法』篇의 첫 번째 부분인 1조에서 10조는 陽脈 5종(大·浮·數·動·滑)과 陰脈 5종(沈·澀·弱·弦·微) 외 기타 5종(結·促·陽氣衰·緩·革脈)의 개별 맥상을 사물의 형상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고, 陽結, 陰結, 陽不足, 陰不足, 血虛, 衛氣衰 등의 병리변화를 통해 그 기전을 기술하고 있으며, 李<sup>38)</sup>의 『瀕湖脈學』에서 맥상을 설명할 때 그대로 인용한 사례가 많으나, 역대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맥상에 대한 가장 초기기록의 하나로서 학습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傷寒論·辨脈法』 1조에서 10조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 결 론

宋本 『傷寒論』 辨脈法 篇의 첫 번째 부분인 1-10조에 대하여 諸 판본과 비교하고 역대의가의 註釋을 분석·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陽脈과 陰脈을 제시하고 이러한 脈과 病證의 상관성을 통해 예후를 논하였다. 脈과 病의 陰陽이 상반되면 脈에 따라 生死가 결정되며, 동일하면 陰陽偏勝하여 結이 된다(1, 2조).

脈象의 특징과 병리기전을 논하였다. 惡寒發熱은 陰陽偏虛로 脈이 微弱하며, 陽脈浮陰脈弱은 榮衛의 衰微를 반영한다. 結脈은 陰盛하여 脈이 緩慢하면서 때로 한번씩 멎었다가 다시 뛰며 促脈은 陽盛하여 脈이 數하면서 때로 한번씩 멎었다가 다시 뛰다. 動脈은 陰陽相搏으로 關上에서 數脈이 보이고 짧게 짧게 動搖하며 緩脈은 陰陽同等으로 和緩한 脈이다(3, 4, 6, 7, 8조).

脈象을 변별하기 위해 사물의 形狀에 비유하거나 類似한 脈은 그 특징을 논하였다. 陽結은 脈이 수레덧개와 같이 浮하고 陰結은 긴 장대를 어루만지는 듯 沈하며 모두 有力하다. 陽氣微는 脈이 떠있는 기름같이 浮하고 陽氣衰는 거미줄같이 微細하며 亡血은 옷칠을 쏟은 듯하고 모두 無力하다. 弦脈과 緊脈은 強急하나 弦은 활줄을 누르듯 端直하고 누르면 움직이지 않으나 緊은 새끼줄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튕기는 듯하고 革脈은 血脫로 弦하면서 芤하다. 여기서 9조 “轉索無常”을 역대의가의 주석을 반영하여 ‘새끼줄을 꼬을 때 흔들리면서 좌우로 튕기는 것’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이해하였다(5, 9, 10조).

宋本 『傷寒論』 辨脈法 篇 1-10조에서 제시된 脈은 陽脈 5종과 陰脈 5종 외 기타 5종(結·促·陽氣衰·緩·革脈)을 합하여 총 15종이다. 大浮數動滑은 陽脈, 沈微弱弦微는 陰脈으로 ‘弱’字를 ‘遲’

字로 대체하면 浮沈, 遲數, 微大로 大別되며 그 외 動脈은 滑脈과 兼해서 잘 나타난다.

4조는 3조와 연결하여 “寸脈浮虛, 尺脈沈弱”으로 이해하고, 5조는 2조와 연결하여 陽結·陰結은 陰陽偏盛으로 結聚된 形狀이며 陽氣微는 脈證이 浮衰하고 陽氣衰는 脈證이 沈微 혹은 細小하며 亡血은 血流不行 혹은 沈而無力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판본을 비교했을 때, 1조는 桂林本에서 ‘弱’字를 ‘遲’字로 대체된 것이 더욱 타당하고 5조는 陽氣衰가 실제에 부합하며 9조는 ‘陰’字를 ‘緊’字의 誤記로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7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참고문헌

- 郭 雍. 傷寒朴亡論. 北京, 中國書庫, 凡例 p 1, 1992.
- 喻 昌.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 王 履. 醫經溯洄集.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 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張 蕾. 宋臣校本<傷寒論>의 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pp 11-17, 2004.
- 李培生. 傷寒論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586-594, 1985.
- 南京中醫藥大學. 傷寒論譯釋(4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95-112, 2010.
- 大塚敬節.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東京, 谷口直良, pp 35-52, 1992.
- 劉渡舟, 姜元安, 生島忍. 現代語譯 宋本傷寒論. 東京, 東洋學術出版社, pp 38-46, 2000.
- 韓祇和. 傷寒微旨論 in 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 線裝書局, pp 3-5, 2006.
- 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55-156, 2006.
- 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 in 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 線裝書局, pp 1-3, 2006.
- 成無己. 註解傷寒論 in 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 pp 23-47, 2006.
- 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70-179. 1957.
- 王肯堂. 傷寒準繩 in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1020-1033, 1999.
- 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錫.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 喻嘉言. 醫門法律 in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197-201, 1999.
- 張 璐. 傷寒續論 in 張璐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559-635, 1999.
- 柯 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pp 1-7, 1986.
21. 程 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22. 程應旆. 傷寒論後條辨 in 續修四庫全書 98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 302-325, 2002.
  23. 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24. 張志聰. 傷寒論集注 in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729-737, 1999.
  25. 張錫駒. 傷寒論直解 in 續修四庫全書 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 168-180, 2002.
  26. 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 21-53, 1997.
  27. 吳 謙. 醫宗金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181-189, 1998.
  28. 黃元御. 傷寒懸解 in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429-453, 1999.
  29. 沈金鰲. 傷寒論綱目 in 沈金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605-875, 1999.
  30. 王 丙. 傷寒論注. in 陸懋修. 世補梯醫書后集. 校正王業莊傷寒論注. 1778.
  31. 章 楠. 傷寒論本旨 in 續修四庫全書 98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 153-178, 2002.
  32. 周學海. 辨脈平脈章句 in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601-618, 1999.
  33. 北里研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研究所. 趙開美本 傷寒論. 東京, 燎原書店, pp 31-34, 1988.
  34. 北里研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研究所. 陣世傑本 金匱玉函經. 東京, 燎原書店, pp 73-78, 1988.
  35. 王淑和. 脈經.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5.
  36. 叢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 232-239, 1994.
  37. 張 機.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서울, 醫聖堂, pp 24-29, 2004.
  38. 朴 庚 譯釋. 瀕湖脈學 奇經八脈攷 附脈訣攷證. 서울, 大星文化社, pp 56, 78, 1992.